

광 고

# 원양산업

제 1136 호

(2021년 8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 Contents



### 협회소식

- 포클랜드 수산청 “한국 원양어선 안전관리 훌륭해요” / 4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5
- 2022년 어기 한-마이크로네시아 참치선망 입어협상 / 6

###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7

### ■ 메로 요리 만들기 / 16 (일식 메로구이)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 '21년 7월 보고 내용 / 17



### 해외수산정보

### ■ 참치어업 동향

- 태평양 참다랑어 TAC 증량 / 22
- 1분기 동부태평양 선망선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 / 22
- 日, 아카미(붉은살) 부족 현상 가속 (1) / 23

- 日 재무성, 6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4
- 日 아이즈어시장, 1~6월 참치 양륙 누계 발표 / 25
- 세이셸 가다랑어, 낮은 어획량에도 가격 유지 / 25
- 대만, 2020년 중서부태평양 어획 저조 / 26
- 미국 국적 선망선 빠르게 감소 / 26
- 中 태평양 선망·연승선단, 수년간 감소 중 / 27
- 푸젠성 원양어선에 새로운 보조금 제공 / 27
- 어업 강제노동, 국제적 논의 시작 / 28
- 미국, 피지 강제노동 참치어선에 수입 중단 조치 / 28
- 스페인 OPAGAC, 강제노동 참치 퇴출 목소리 높여 / 29
- 인도네시아, 국제 수역 연승선 확대 계획 발표 / 29
- 2021년 상반기 세계 참치캔 수요 침체 / 30
- 태평양 10개국 참치, 2050년 20% 감소할 수도 / 30
- MSC, 중서부태평양 어업 인증 중단 경고 / 31
- 마이크로네시아 3개 기업, 참치 선망어업 MSC 인증 / 31
- 스페인 OPAGAC, 최초 글로벌 MSC 인증 난항 / 32
- 프랑스 CFTO, 인도양 가다랑어 MSC 인증 취득 / 32
- PNA, FAD 어업 MSC 인증 추진 중 / 33
- 쿡제도, 스페인 어선에 EEZ 개방 유지 / 33
- EM, 연승선 과소보고 방지 효과 증명 / 34
- 상반기 베트남 참치 수출액 21% 성장 / 34
- 태평양 국가 장관, 선원 백신 접종 우선시 촉구 / 35
- 마셜 제도, 항만 통제 강화 검토 중 / 35

## Contents

###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수출 가격 급락 / 36
- 포클랜드, 감염병 통제 규정 개정 / 36
- 日 연구원, 남미 오징어 자원 현황 설명 / 37
- 국제적 오징어 IUU 방지 단체 결성 / 37

### ■ 명태어업 동향

- 명태 공모선, 수익성 위기 / 38
- 러시아 8월초 냉동 어류 가격 하락 / 38
- 러시아, 명태·연어 철도 운송 보조금 고려 / 39
- 러시아 Gidrostroy사 MSC 필렛, 수리미 생산 계획 / 39
- 러시아 RFC, 자국 공급업체에 명태 연육 첫 공급 / 39
- 알래스카 명태 어업, 차후 조업 노력 증가 전망 / 40
- 명태, 가장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 / 40
- 러시아산 명태 중국 가공, 회복 불가능할 수도 / 41
- 日 미국산 명태 연육 가격, 13년만의 최고가 / 41
- 일본수산, 명태 단백질 활용 제품 다수 출시 / 42
- 미국 정부, 또 다시 대규모 알래스카 명태 구매 추진 / 42

### ■ 공치어업 동향

- 2021년 공치 장기 어황 전망 / 43

### ■ 각국 수산 동향

- EU,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자국 유류보조금 허용 입장 / 44
- 중국의 새로운 수산업 발전 정책 / 44

- 소말리아 새로운 수산법 초안 마련 / 45
- 뉴질랜드 심해 어업자, 해저산 트롤 금지요구에 반발 / 45
- 세계 수산물 시장, 2030년 2억 톤 성장 전망 / 46
- EU-모리타니, 새로운 수산업 협정 타결 / 46
- 타이 유니온, 호주 오메가-3 회사 지분 인수 / 47
- 프린스 그룹, 2030년까지 탄소중립 약속 / 47
- 미중러 등 10개국, 어업 규제 위해 북극 연구 추진 / 48
- 유럽·중국 홍수로 해운 운임 인상 불가피 전망 / 48
- 미국 해산물 체인, 식물 기반 수산물 메뉴 출시 / 49
- 기후 변화, 크릴새우 번식에 영향 미친다. / 49

### ■ 쉬어가는 난 (시)

- 바다1 〈정지용〉 / 50

### ■ 국내 수산 뉴스

-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 다 잡겠습니다! / 51
-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 52
- 수산식품 수출기업, 365일 24시간 지원 받는다 / 52
-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됐다 / 53
- 원양어선 전자 보고 근거 명확히 한다 / 53
-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 54
- 선원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깁니다 / 54
-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 55
-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6
- 원양어선원가족 위한 ‘국민관광상품권’ 배부한다 / 56

## 포클랜드 수산청 “한국 원양어선 안전관리 훌륭해요”

‘아그네스 108호’ 선령 38년 노후선임에도 철저한 관리로 극찬 받아  
원양협회 윤명길 회장, 김용환 선장에게 감사패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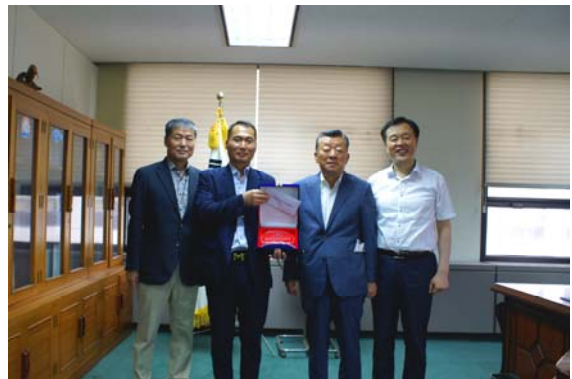
포클랜드 어장에 조업 중인 우리나라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철저한 안전 관리로 포클랜드 정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은 지난 8월 12일 현지 지역 사회에 조업국으로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오징어채낚기선단 선장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어준 ‘아그네스 108호’ 김용환 선장에게 협회장 명의의 감사패와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장 명의의 부상을 수여했다.

아그네스수산(대표이사 허옥희) 소속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아그네스 108호’(선령 38년)는 지난 2월 7일 포클랜드 스탠리항에서 이번 어기 포클랜드 입어 허가장을 받기 위해 포클랜드 수산청의 안전검사를 수검했다. 아그네스 108호의 선령은 38년. 어디 하나 문제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후선이였다. 안드레아 클라우센 수산청장을 비롯한 수산청 관계자는 아그네스 108호에 승선해 선박 선박안전검사 및 안전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안드레아 수산청장은 점검 현장에서 『노후선이라도 관리를 잘한다면 지난해부터 적용된 포클랜드 항만국 통제(PSC)의 엄격한 안전 기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김용환 선장을 비롯한 아그네스 108호 선원들과 관계자들이 이번 검사를 열심히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수산청장의 감사 표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새롭게 적용된 구조보트로 실시한 추락 선원 구조 훈련(MOB 훈련)을 참관한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었고, 한 해 동안 새로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겠지만 대단히 발전했고 잘 준비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남겼다.

우리 업계는 지난해부터 포클랜드 수산청과 많은 대화를 하며 변경된 기준 준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호평을 받으며 허가장을 수령했다.

우리 협회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언론, 해수부 등에 적극 알렸으며 SNS도 게시했다. 그 결과 8월 16일 부산일보(13면), 수산신문(5면), 수산인신문(3면), 한국수산신문(8면) 등에 관련 기사가 실렸다.

우리 협회 신현애 상무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도 수산청장이 우리나라 포클랜드 원양어선의 안전 상태와 정확한 어획물 계량 및 보고를 확인하고 감사 편지를 보낸바 있으며 현지 신문에도 보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이번 아그네스 108호 건으로 우리나라 어선이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선원들의 안전의식이 높다는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제고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우리 선사들은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업계, 선원 수급문제 해결 절실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가 지난 8월 18일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원양산업과 이성재 사무관, 서민혜 사무관, 선원정책과 김환 사무관 등이 참석했고, 원양업계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을 비롯해 경양수산,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한성기업 등 14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증견·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원양어선 업종별 노후어선 대체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2026년까지의 원양 어업 생산량과 매출액 목표, 신조 계획, 간편식 레시피 개발 등 5개 정책분야에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양어선 업종별 노

후어선 대체 방안에는 지난 8월 10일 ‘원양어업 업종별 노후 선박대체 계획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종별 신조조건 및 추진방향에 대한 해수부 검토안이 담겼다.

원양업계는 해수부에서 원양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조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상환해야 하는 신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감세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선원 수급과 관련하여 원양어선의 해기사선원 구인난을 설명하고 통신장 겸직제도 완화와 외국인 해기사 승선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아울러, 윤명길 회장은 시급한 선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TF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2022년 어기 한-마이크로네시아 참치선망 입어협상 조업일수, 일일 조업 가격 등 입어조건 합의

2022년 어기 한-마이크로네시아(FSM) 참치선망 입어 협상이 지난 8월 4~5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에는 동원산업 박상진 상무(수석대표), 사조산업 이경영 차장, 신라교역 박정국 차장과 함께 우리 협회 신현애 상무 등이 참석했다. FSM 측에서는 Mr. Roger Arnold 수산청 이사회 의장, Mr. Eugene Pangelinan 수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기간 동안 양국 대표단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FSM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참치선망선들의 입어 조건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협상 마지막 날 허가척수, 조업일수, 일일 조업 가격, 입어료, 전배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그 외에 우리 측은 우리 선단이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FSM 수역 내 입항 전제가 불가능해 해상 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선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감안한 입항 전제 허용을 요



구했다. 이에 대해 FSM에서는 외국 선박이 현재 14일 해상 격리 의무를 준수한다면 입항 전제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별도 격리 없이 입항 후 전제 및 물자 보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산청에서 이미 국회에 건의했다고 알렸다.

우리 협회와 FSM 수산청은 추후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약정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사 회사명 · 주소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회사명	선우실업(주)	티앤에스산업(주)
주소(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317호(여의도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4, 6층(서초동)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경영지원본부

### 총무부

- '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서초세무서)
- '21. 6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서초세무서)
- '21.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업무 추진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입력·확인업무 등 추진
- 2021 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제출(원양산업과)
- 사업장 지도점검 서류 우편 접수 및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18~2020귀속분) 등
- '21.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초세무서)
- 협회비 미납업체 “협회비 납부 협조” 공문 발송
  - 6개월 이상 미납사 : 8개사
-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지 선정(안) 서면 제출
  - 개최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 삼호물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인단 선출 관련서류 제출

### 기획홍보부

-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7월) '21.7.19 / 서면결의
  - (8월) '21.8.6 / 서면결의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7월) 8척 19.77억원 원안의결
  - (8월) 5척 5.46억원 원안의결
  - ※ 7월말 누적 16개사 689억원 대출(37% 소진)
- 원양산업지 7월호(제1135호) 제작
  - 협회소식 2건(협회 회장단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T/F회의)
  - 국내소식 9건, 해외수산정보 67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6권)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관련 업무 추진
  - 과업지시서 초안 작성·송부, 업무협약(원양노조, 이상고 교수)
-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관련 업무추진
  - 취합자료 정리 및 검토, 화보 초안 작성, 1차 교정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14호 7.14, 115호 7.21, 116호 7.28, 117호 8.4, 회원사 임직원 카오톱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14호 정보 14건(러시아 명태, 냉동보관 한계 / 남대서양 기구 “中 오징어 조업중단 무의미” / 북양 공해 쾅치, 지난 어기보다 큰 편)
  - 제115호 정보 19건(알래스카 B시즌 명태 사이즈 우려/ 국제 오징어 IUU 방지단체 결성/ WTO 통상장관 회의, 수산보조금 협상 이견)
  - 제116호 정보 21건(MSC, 중서부태평양 어업 인증 중단 경고/ 명태,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 WTO 회의 “수산보조금 연내 타결 노력” )
  - 제117호 정보 22건(태평양 참다랑어 TAC 증량/ 러시아, 명태·연어 철도 운송 보조금 고려/ 2021년 쾅치 장기 어해황)

- 수산대전 관련 원양어획물 할인품목 안내 (8.5, 회원사)
  - 수산회에 일정 및 지정어종 문의·파악, 안내

구분	행사기간	지정 품목
풍어기원 특별전	8.23 ~ 29	품목 제한 x
추석 특별전	(온라인) 9.6~9.26 (오프) 9.2~9.22	-
가을 특별전	(온라인) 10.4~10.24 (오프) 10.7~10.27	오징어, 명태
코리아 수산페스타	(온라인) 11.1~11.14 (오프) 11.4~11.17	오징어, 명태
연말 이벤트전	(온라인) 11.22~12.12 (오프) 11.18~12.8	오징어, 명태

### 회원지원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추진
  - 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참석
    - 일시/주최 : (김앤장) '7.14, 14:00 (울촌) '7.16, 14:00
    - 참석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계 T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차) '21.7.14, 16:10 / 영상회의 (2차) '21.7.23, 14:00 / 영상회의 (3차) '21.8.6,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TF 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업계의견·연구 용역 논의
  -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중대재해 사례조사(회원사/7.2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 케이프타운 협약 대응을 위한 업무추진
  - 가. 케이프타운 협약 대응을 위한 제3차 TF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7.19, 14:00 / 영상
    - 참석자 : 해수부, 한국선급 등 TF 구성 기관·위원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케이프타운협약 협약 대응 등 논의
  - 나. 케이프타운 협약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1.7.22, 10:00 / 영상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선박검사기관, 용역 업체, KMI, 원양업계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케이프타운 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 논의
- 2021년 제2차 한국해양연수원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7.16 / 서면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장 및 이사회 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직제규정·보수규정·예비비 집행계획 등 심의
- 2021 임금교섭 관련 업무추진
  - 가. 제7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1.7.21, 13: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사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1년도 임금교섭 관련 협의
  - 나. 제2차 노사양위원장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1.7.29, 12:00 / 부산
    - 참석자 : 노사 양위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1년도 임금교섭 관련 협의
- '21년도 상반기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점검 참석
  - 일시/장소 : '21.7.21, 14:00 / 부산 감천항
  - 참석자 : 부산해양청, 원양노조, 선원복지고용센터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사조 포세도니아호 외국인선원 면담 및 설문 조사 실시 등

- 22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업무협의 참석
  - 일시/장소 : '21.7.23,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해운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선주단체별 22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안) 업무협의
- 2021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7.27,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KMI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21년 사업시행지침 설명(대상품목 : 청어)
- 선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관련 업무추진
  - 가. 선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희망자 명단제출(해수부)
    - 10개사 64명(7.14)
    - 5개사 8명(7.20, 21, 22)
  - 나. 국제항해종사 선원 예방접종 관련 업무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8.5,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운협회 등 유관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국제항해종사 선원 예방접종 계획 등
  - 다. 선원 예방접종 희망자 명단 제출(해수부)
    -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대상 - 1개사 17명(7.29)
    - 국제항해 종사 선원 대상 - 18개사 189명(8.4)
  - 라.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8.6)
    - 신청 총 238명 중 1차 접종 완료 125명
- 원양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제3차 노사정 합동점검 관련 안내(회원사/7.15)
  - 제3차 합동점검 대상선박 안내 및 자료준비 요청 등 ※ 8월 중순경 예정
- 2021년도 원양선원 묘지관리 관련 업무추진
  -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해수부/7.15)
  - 홍보계획 보고(해수부/8.4)
- 2분기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보고(해수부/7.16)
  - 38개사 189척 총 4,108명(인니 3,122명, 필리핀 603명, 베트남 315명 외)
- 임금채권 및 송환기금증서 발행(7.20)
  - 선우실업(주) 블루오션(원양저연승/835톤)
- 제1차 선원정책위원회 의결서 송부(해수부/7.22)
  - 운영규정 및 실무위원회 운영·구성(안)
- 원양어선원 가족친화 국민 관광상품권 지원사업 안내(회원사/7.27)
  - 원양어선원가족 해외조업현장 방문사업 대체 실시
  - 최대 870명 선착순 지원 예정
- 2022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신청명부 제출(해수부/7.28)
  - 12개사 54명
-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 제출(해수부/7.29)
  - 36개사 185척 제출, 미제출 1척(휴업)
- 외국인선원 승하선관리 철저 요청(회원사/8.3)
  - 실제 승선 선원과 승무원명부 일치 유의 등
- 한국선원 승선현황 파악(회원사/8.2)
  - 한국선원(해기사 및 부원)승선 현황 조사
- 2022년도 오션폴리텍 해기사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 제출(해양수산연수원/8.3)
  - 동원산업 등 3개사 30명
- 2021년도 수산계 종합승선 실습과정 장학금 및 장학증서 송부(해양수산연수원/8.3)
  - 2명 60만원
- 2021년도 원양선원 해외묘지관리 및 이장지원 사업 홍보계획 보고(해수부/8.4)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회원사/8.4)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기준·봉인방법 규정 등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 마산, 목포검역소/7.15, 7.16, 7.19)
    - 6명(한국 3명, 인도네시아 2명, 필리핀 1명)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회원사/7.12)
  - 외국인선원 근무 사업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회원사/7.13)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회원사/7.15)
  - 인도네시아 현지 PCR 검사 지정기관 안내 (회원사/7.16)

- 항만입국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수칙 준수 요청 및 해외선원 줄임센터 이용 협조 사항 알림(회원사/7.19)
-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연장조치 안내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변경 알림(회원사/7.19)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안내(회원사/7.22)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마산, 부산검역소/7.26, 7.27, 8.3)
  - 21명(한국 18명, 인도네시아 2명, 베네주엘라 1명)
- 외국인 교대 선원 입국시기 예정 현황 자료 송부(해수부/8.5)
  - '21.8.1-8.31일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 선원 9개사 12척 179명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회원사/7.26)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변경 알림(회원사/7.26)
- 인도네시아 교대선원 비자 관련 사항 알림(회원사/7.26)
- 항만입국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항 변경 알림(회원사/7.27)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회원사/7.30)
- 임시생활시설 중도퇴소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사례 안내 및 이탈방지 철저 요청(회원사/8.3)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1판) 수정 안내 및 인도 미얀마 발 해외입국자 격리정책 조정시행 안내(회원사/8.3)
- 해적관련 업무추진
  - 2022년도 청해부대 파견 연장에 대한 의견제출(해수부/7.13)
  - 해상특수경비업체 허가 및 영업승인 현황 알림(회원사/7.13)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동향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7.15)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7.16)

- 8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회원사/7.26)
- 해상특수경비업체 허가 및 영업승인 현황 알림(회원사/7.30)
- 오만해 외국적 선박 통제불능·나포상황 발생 등 정보공유(회원사/8.5)
- 8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변경 알림(회원사/8.5)

## 해외협력본부

### 해외협력 1부

- WCPFC 어선원 근로표준 작업반 참석
  - 일시/장소 : ' 21.7.13, 0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작업반 참여국 / 협력1부 과장 외 2명
  - 내용 : WCPFC 어선원 근로표준에 관한 국별 입장 공유, 이메일을 통해 논의 합의
- 제8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21.7.30, 15: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출어사 / 해외협력1부
  - 내용 : 전자모니터링(EM)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요청, OPRT 가입국 지원금 납부 동향 확인 후 결정
- 제2차 WCPFC 열대성다랑어 워크숍 및 제17차 WCPFC SC(과학위원회)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방식 : ' 21.8.2,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해외수산협력센터, 관련 업계 / 협력1부
  - 결과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입장문 제출, 열대성다랑어 목표기준점 분석 등 제17차 SC 주요 의제 검토
- 2022어기 한-FSM 입어협상 개최
  - 기간/방식 : ' 21.8.3-4, 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FSM) 해양자원청 이사회 의장, 수산청장 등 (우리나라) 태평양 참치선망출어사 / 협력1부
- 결과 : 2022어기 FSM 수역 입어조건 합의, 입항전재 허용 요청, 전자보고 등 논의
- 국제옵서버 발전협의회 참석
  - 기간/방식 : ' 21.8.5,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물관리원 원양자원과, 수산자원관리공단, 옵서버협회, 업계 / 협력1·2부
  - 결과 : 예산 증액 후 옵서버 임금 차등 지급(안) 재논의, 옵서버 업무 평가 방안 수립 등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지역수산물 어획할당량 유보량 배정 안내 (7.15/해당수역 출어사)
  - 원양어업 관리대상종 지정 운영 시행계획 안내 (7.14/전 회원사)
  - IOTC/CCSBT 해상전재 옵서버 미승선 선박 사전전재 보고 규정 재안내
    - 옵서버 미승선 선박은 최소 전재 한 달 전 해당 사무국에 통보
  - 전자모니터링(EM) 시범사업 운영 설명회 개최 요청(과학원)
    - 카메라 설치 위치/방법, 업계 부담 경비 및 규모 등 설명 요청
  - 지역수산물 어획할당량 소진 현황 및 전배 실적 제출(해수부)
  - CCSBT 어획실적(6월) 및 양륙계획(8월) 제출 (해수부)
- 참치어업 지원사항
  - 연안국 입어협상 일정 협의
    - (투발루) 8.31.-9.1., (PNG) 9.23-24, (나우루) 서면 논의
    - (키리바시/솔로몬) 추후 회신
  - 2022어기 FSM 입어약정 상 작년과 동일한 전배(IN) 조건 유지 요청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 가. 러수역 조업 보고(7.21-7.31)제출 (해수부, 주러한국대사관)

업종	어종	조업량	누계량	소진율 (%)
명태 트롤	명태	1,346	7,833	27.58
	대구	0	1	2.13
	청어	11	64	25.46
대구 저연승	대구	164	1,337	26.74
	가오리	19	139	27.84
꽂치붕수망	꽂치	0	0	0

- 나.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해상용전자저울 3대 추가 직인 보증 처리 (7.12 / 남북수산)
  - 대구 조업선 조업일지 수산청 추가 등록 처리 및 선사 제공 처리 (7.14, 7.15 / 연해주수산청, 사조대림)
  - 조업선 통제 감독관 교체 별첨 계약 서명본 제출(7.21 / 동북극국경수비대)
  - ' 21년도 조업 허가장 기재사항 변경 전문 발급 및 조치사항 알림(7.12 / 해수부, 남북수산)
    - ※ 선원수 90명으로 변경
- 다. 꽂치붕수망 업무추진
  - 러수역 조업선 조업 계획 알림(7.19 / CFMC)
  - 러수역 꽂치 조업허가 신청 변경 요청 (7.21 / 연해주수산청)
  - 꽂치 조업 허가장 발급 알림 (7.22 / 해수부, 꽂치위원장)
    - 허가장 발급 키퍼 2,700톤, 300톤 잔여 키퍼는 러수산청내부절차 완료시 추가 신청 예정
  - 꽂치붕수망 조업허가장 원본 배부 (7.28 / 꽂치위원장)

- 러수역 풍치 조업 허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및 변경 전문 발급 알림 (7.29 / 러수산청, 해수부, 원양물산)
- 러수역 입어시 선박 격리 및 '코로나19' PCR 음성증명서 제출 내용 알림 (8.2 / 풍치위원장)
- '21년도 러시아경제수역 풍치 잔여쿼터 허가 신청 및 허가 전문 발급 알림(7.29, 7.30, 8.4 / 러수산청, 해수부, 풍치위원장)
- '21년도 조업계획 변경 알림 및 추가계약서 서명본 제출(8.3, 8.5 / CFMC)
- '21년도 입/퇴역 보고 유의사항 알림 (8.6 / 풍치위원장)
- 러시아 외국인 투자 요건 강화 관련 법률 개정 관련 업무추진
- 가.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7.13,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주재), 각사대표 /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업계 소유지분 25%미만으로 변경 예정
    - 우리나라 합작사의 투자 승인 확률 희박
    - 기재부 등 건의 자료 작성에 협조키로 함
- 나. 러 수산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요건 강화 법률 공포 알림(7.16 / 한러어업위원장)
  - 수산 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기존 50%미만에서 25%미만으로 축소
- 다. 북약합작 현황자료 제출(7.29 / 해수부)
- 오징어채낚기 업무추진
- 가. MSN 1873 관련 선박별 체크리스트 검토회의 개최
  - 일시/장소 : ' 21.7.16,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각 사 대표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2023년 PSC대비 각 선박별 체크리스트 비교 분석 및 수리필요사항 점검
- 나. 각 선박별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수정 보완 및 공유(7.19/오징어위원장)

- 다. '아그네스 108호' 김용환 선장 감사패 전달식 참석 협조요청(8.5 / 아그네스수산주)
- 라. 포클랜드 채낚기 조업선 교육 문의 (8.3 / 아그네스수산)
  - 상급 안전교육(소화, 구명정 응급처치) 재교육 이수 협조 요청
  - 신청 순서에 따라 교육 참석가능(260명 대기)
  - 긴급이수 필요시 대기자가 적은 목포지점 활용 이수 알림
-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관련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 21.8.6,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 남빙양저연승업계 / 해외협력본부장 외 2명
  - 주요내용 :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엄브렐라) 설치 논의
    - ※ 엄브렐라 도면 요청 및 11월 동등성평가에 맞춰 조업선에 임시 설치키로함
    - 41해구 옵서버 200% 승선,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 협력하기로함
- 제2차 남극해양보호구역(MPA) 중장기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 ' 21.7.27,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극지연구소, NGO, 남빙양업계 / 해외협력본부장(지정토론) 외 3명
  - 회의내용
    - 노르웨이선박 펄핑식 조업방법 크릴 자원량에 부정적 시각 확인
    - 무리한 올림픽 조업 방식보다 국가간 쿼터제 논의 시작함
    - 웨델해 및 남동극해 MPA 설정 관련 업계간 입장 합의
-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업무 추진
- 가. NPFC 수역 어획할당량 선사간 전배 승인 알림(7.15 / 해수부)
  - 동원해사량 301통영(1,183톤) → 유앤씨

- 나.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 보존조치 준수 예정 알림 (7.12, 7.19 / 대만, 중국 수산부)
  - 동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위반사항은 아니나, NPFC 협약수역내 170 이동 지역에서 6월부터 7월까지 콩치 조업을 삼가 조치함
- 다. NPFC '301삼영호' 허가 갱신(8.2 / NPFC)
- 라. NPFC 선박감시시스템 공식 시행 알림 (8.5 / 북양, 대구, 콩치, 오징어위원회)
  - '21.8.10일부로 NPFC 협약수역 내 조업선 및 운반선의 VMS 관련 조치 공식 시행될 예정임을 알림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업무추진
  - '남극반도 MPA 제안(크릴조업금지수역 지정)에 따른 업계 영향 자료 제출(7.21 / 해수부)
    - 일반보호구역(GPZ) 지정시, 전체수역대비 20~30% 생산감소
- 남태평양수산물관리기구 옵서버프로그램 인증 협조 요청(7.16 / 수과원)
  - 한국 옵서버프로그램이 SPRFMO 평가기준에 충족 여부 평가
  - 한국 옵서버프로그램 운영 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 부산지부

- '21년도 수산계고교 종합승선실습과정 실습생 특별강의(부산지부장)
  - 일시/장소 : '21.7.21, 10:00/해양수산연수원
  - 대상 : 수산계 5개 고교 3년생 28명
  - 내용 : 원양어업 현황 강의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8.6 / 서면결의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7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7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64개사 805건(7.1~7.31)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1개사 1척(참치연승1)
  - 출항 : 4개사 6척(참치선망1, 참치연승5)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 해외수산협력센터

-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 가. WCPFC 선원인권 작업반
  - 일시/장소 : '21.7.13./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주요내용: WCPFC 선원 노동기준 설정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논의
- 나. WCPFC NC-IATTC 참다랑어 작업반 대비 일본 양자 회의
  - 일시/장소 : '21.7.19./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주요내용: 일본 참다랑어 보존조치 개정안 관련 의견 교환
- 다. IOTC-IWC 합동작업반
  - 일시/장소 : '21.7.26~27./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주요내용: 인도양 고래목 부수어획 현황 및 경감조치 논의

- 라. 제6차 WCPFC NC-IATTC 참다랑어 작업반
- 일시/장소: ' 21.7.27~29./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주요내용: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 증가 및 어획통제규칙(HCR) 개정 논의
- 마. SIOFA 이행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7.1~3./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수과원, 원양협회,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 주요내용: VMS 보존조치 수립 등 보존조치 이행 관련 의제 논의
- 바. SIOFA 당사국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7.5~9./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수과원, 원양협회,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 주요내용: 이행위 보고서 검토, 과학위 보고서 검토, 사무국 행정 효율성 등 논의
- 사. 제1차 SPRFMO SC 오징어 작업반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7.14./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주요내용: SPRFMO 대양오징어 CMM 개정 관련 논의
- 아. 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 일시/장소: ' 21.7.1~2./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나일강 주무관, FMC 김태린 전문관, 원양협회 백상진 사원,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주요내용: CPC 열대다랑어 조업계획서 검토, 어류군집장치관리 등 MSC 조치 논의
- 자. ICCAT 패널4 회기간 회의
- 일시/장소: ' 21.7.6~8./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주요내용: 북대서양 청상아리 보존관리조치 개정, 북대서양 황새치 MSE 경과 등 논의

- 차. 케이프타운협정 TF 3차 회의
- 일시/장소: ' 21.7.19.(월)/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원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해양수산개발원, 원양협회, 협력센터
  - 주요내용: 케이프타운협정 비준 추진 경과, 업계 설명회 사전 준비
- 카. 케이프타운협정 업계 설명회
- 일시/장소: ' 21.7.22.(목)/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원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해양수산개발원, 원양협회, 원양업계, 협력센터
  - 주요내용: 케이프타운협정 현존선 및 신조선 적용 주요내용 설명, 질의 응답

####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가. OFIS 관리
- 신규 게시판 개설(자원보존관리조치, 우리가 배운 것, 국제회의 결과 보고서)
  - 자료업로드(ODA 자료, 자원보존 관리조치, 원양산업뉴스 45건)
- 나. OFIS 대외경제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회의
- 일시/장소: ' 21.7.2, 10:30/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코트라 조원찬 차장, INZENT 이영재 수석연구원, 협력센터 이희진 팀장, 서규혁 행정관, 이원영 행정관
  - 주요내용: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설명, OFIS 자료 공유방안 협의
- 다. E-Newsletter 6월호 발송
- 상반기 명예해양수산물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7.14. / 부산역 회의실
  - 평가위원: 권현욱 센터장 등 평가위원, 이희진 팀장, 이원영 행정관
  - 주요내용: 21년도 상반기 명예해양수산물 평가 및 제도논의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
- 가. 마이크로네시아 '22년 차기사업 관리
  - 공식수원요청서 확보 완료(7.2, 마이크로네시아 외교부)
  - 기재부 2차 심의 참석(7.5)
- 나. '23년 차기 ODA사업 발굴 준비
  - FSM 차기사업 발굴 영상회의
    - 일시/장소: ' 21.7.26, 09:00/ Zoom 영상회의
    - 참석자: FSM NORMA Mr. Pangelinan Executive Director,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주요내용: 차기사업 수요 확인
  - 차기 ODA사업 수요 전달 요청 (7.29, 키리바시 수산부)
  - 차기 ODA사업 추진 제안 공문 발송 (7.27, FSM NORMA)
- 라. ODA사업 관련 업무협의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KOMSA))
  - 일시/장소: ' 21.7.23, 14:00/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KOMSA 강길보 실장, 김태훈 연구원, 이지은 연구원,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 주요내용 : 해양수산 ODA사업 협력방안 협의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추진
- 가. 사업 관리
  - 통계조사 사업 2차 교부금 신청 공문 발송(7.8.)
  - 사업 중간보고 공문 발송(7.23.)
- 나. 기업, 어선 조사항목 관련 무응답 보정
  - 경영자료 추가 보완 요청(7.6.)
  - 무응답 보정
- 다.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1.7.6. / 토즈마이스 세종센터
  - 참석자: 원양산업과 서민혜 사무관, 김영민 사무관 외 2명, 수품원 박민재 주무관 외 1명,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박주삼 이사장 외 2명,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윤유정 행정관
  - 주요내용: 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 해외투자 전문교육 및 투자정보조사
- 가. 해외투자 정보조사 정보 수집
  - PNG 수산청 WCPFC 20년도 연간 보고서 데이터 확보
  - 냉동해삼 해외 전문가 컨택 및 자료요청
    - Michael Fabinyi, Chantal Conand
  - 파푸아뉴기니 수산업전략계획 '21-' 30 확보
  -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관 협조 요청
    - 해삼 관련 밸류체인 및 참치 연승 규제 문의
    - 진출 업체(유나이티드씨푸드) 서면인터뷰 요청
  -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 파푸아뉴기니 수산청 전략계획 자료 공유, FDI 협상가능범위 및 외국인투자제한 재문의
- 나. 해외투자 정보조사 자료 작성
  - 파푸아뉴기니의 중국 투자현황, 신규산업단지 (PMIZ), 호주공동관리구역 랍스타 어업 코로나 영향 관련 자료 정리
  -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단계 자료 작성
- 다. 1차 번역 계약완료 및 대금지급
  - PNG 수산청 어업 인프라 개발 계획
  - KPMG 사업진출 가이드
  - EU의 PNG산 수출용 참치 감사 보고서
- 라. 해외투자 전문교육
  - 초청연사별 아젠다 확정 요청(7.19한)
  - 초청연사 아젠다 및 질문사항 조사 공문 발송 (7.6, 전회원사)
  - 초청연사 아젠다 수요조사 취합 및 연사별 요청사항 전달
  - 초청연사 사전 PPT 및 요약자료, 프로필 공유 요청(~8월 20일)
-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2/4분기 실적보고(7.9, 국제협력총괄과)



## 일식 메로구이



###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메로 140g 1팩, 대파 1/4, 간장 4술, 설탕 3술, 맛술 1술, 물 5술, 마늘 1.5쪽

###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메로를 해동하면서 마늘을 슬라이스 편 썰어 놓는다
- ② 대파는 채를 썰어 찬 물에 담가 아린 맛을 빼고, 비율대로 데리야끼 소스를 만든다. 시중 데리야끼 소스를 이용해도 좋다.
- ③ 살짝 기름을 두른 팬에 메로와 마늘을 굽다가 중불에 소스를 넣어 졸여준다.
- ④ 다 구워지면 접시에 메로와 파채를 곁들여 낸다.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7월)

##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벨기에, 세네갈 항구 지원 지속 약속

- 세네갈은 벨기에에 벨기에-세네갈 2019~2023 협력 프로그램 협약 지원을 다시 확인했다.

###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상	1,065
	1.5kg 상	938
	1.5kg 하	767
황다랑어	10kg 상	2,143
	5kg 상	1,713
	3.4kg 상	1,151
눈다랑어	3.4kg 상	1,108

###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481 유로/MT	경유	'21.7.26

- 출항 전 승선 대기 중인 선원들의 코로나 확진이 빈번해 출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선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지난주 확진자 1,700명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일일 600명대로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 방역당국은 올 10월까지 백신접종 가능자의 10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차 접종률 90%, 2차 접종률 30%를 기록하고 있다.
- 당국은 현재 접종 가능 연령 하향(만 17세-만 15세)을 검토 중이다.

###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50	로인가공용(PAFCO)

###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12달러/MT	M.G.O	'21.8.9

##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어업 동향

- 피지 수역 및 근처 원양어업 관련 어획은 지난달 대비 큰 변동 없이 회당 1.5~2.5톤 정도의 순조로운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어업 동향

- 금일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조업 어획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3~0.7톤으로 전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



### 나. 미 연방 정부, 사모아 해양보존 승인

- 미국 수산청(NMFS)은 사모아를 대상으로 2021년 7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유효한 해양보존계획(MCP) 승인을 발표했다.
- MCP의 6가지 보존관리 목표와 우선순위 지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 어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 극대화
  - 수산물 평가관리를 위한 과학연구 지원
  - 수산 관리의 생태적 접근 촉진
  - 어업 자원 관리에 있어 섬 문화전통 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기회 장려
  - 수산 보존 교육봉사활동지역협업 촉진
  - 최적의 집행 수준을 달성하고,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방법 개발 장려

### 다. 코로나 관련 동향

-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없으며, 모든 사업체 및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중이다.
- 하와이 항공은 9월 16일부터 운항 재개 예정.
- 외국인 및 자국민이 입국하려면 'Talofa Pass'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 일반 서류, 백신 접종 카드, 탑승 21일 전·10일 전·5일 전·24시간 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 하와이 2주 격리는 위의 검사로 대체되었으나, 사모아 입국 시 3~7일간 격리될 수 있다.

###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200	
눈다랑어	라운드	1,200	
가다랑어	라운드	1,200	

###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2.48(gallon)	'21.8.7

##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태평양 IUU 대비 군사화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통제를 위한 목적 및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평양의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다.
-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의 주도하에 미국, 프랑스, 호주 및 뉴질랜드가 추가적 군사산을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다.
- 최근 미국은 괌에 47미터 고속경비정 3척을 배치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남태평양 해안 경비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350	Sea Jho Co.Ltd
	L	2,350	
	M	2,100	
	S	1,800	
SQUID	2L	4,050	
	L	3,050	
	M	3,000	
	2M	2,800	
	S	2,750	

###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834/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8.3
	LMFO \$714/MT (Tamaru에서 공급 기준)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선박 감시 센터 재정비

- 가나 Tema에 본부를 둔 정부간 기구인 중서부기니만 수산위원회(FCWC)는 최근 기니만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역 감독통제감시센터(RMCSC)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범식을 가졌다.
- RMCSC는 선박 감시·분석 기술을 개발·지원할 것이다. 또한 공인된 어선과 IUU 등재 어선 목록에 용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최신 목록 유지를 위해 등재 어선의 지역 기록도 보유하게 된다.
- RMCSC는 지역 및 해상 공동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IUU를 단속·집행하는 지역 옵서버들에게 훈련·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시행한다.

### 나. 나이지리아 법원, 중국 어선 나포 해적 10인 징역 12년 선고

- 나이지리아 Lagos 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코트 디부아르 EEZ에서 중국 어선 Hailufung 2호를 납치한 해적 10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서아프리카 해적에 대한 체포와 재판이 매우 드물게 행해지는 실정 속에서, 이번 징역 12년 선고는 나이지리아 해적 단체에 새로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 다. 해적 피랍 선원 석방

- 지난 5월 20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 피랍된 중국계 참치 원양어선사인 African Star 사 소속 참치 선망선 Atlantic Princess호의 한국인 정 모 선장과, 중국, 러시아 선원 4인이 사건 발생 41일 만인 지난 6월 29일 석방되었다.
- 지난 6월 1일 동일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 피랍된 Iris-S호의 김 모 선장을 비롯, 한인 간부 선원

등 4인과 현지 선원 1인이 피랍 62일 만인 8월 1일 밤 10시경 석방되었다.

- 정부는 고위험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원, 선사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 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법이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통과될 경우, 생존을 위해 고위험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원양어선사들에게 사업의 존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주 가나 대사관은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협력 중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IT 장비 18만 7,000 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도 했다.

###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700	
	10kg 하	1,360	
가다랑어	15kg 상	1,070	
	15kg 상	920	
	3.4kg 상	1,270	
	1.8kg 상	1,220	

###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600달러/키	M.G.O	'21.7.31	
함만급유	650달러/키	M.G.O	'21.7.31	

##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새우 클러스터 조성 계획

- 인니 정부는 '24년까지 새우 수출 250% 증가 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적 새우 클러스터를 3개 지역에 개발할 계획이다.



- 해당 계획을 위해 정부는 양식지역 클러스터 재생사업과 양식장 인허가 간소화, 양식기술 현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나. 인도네시아 수출 동향

- 2021년 상반기 연간 목표액 60억 5,000만 달러의 42%인 26억 달러(7.3% 증가)를 달성했다.
- 인니 해수부의 Machmud Sutadja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이 예상되나, 수출물량 제한, 일부 국가의 락다운, 냉동 컨테이너 부족과 운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수출국은 미국 : 11억 달러 (44.4%) / 중국 : 3억 8,290만 달러 (14.8%) / 일본 : 2억 7,890만 달러 (10.8%) / ASEAN 국가 : 2억 7,010만 달러 (10.4%) / EU : 1억 3,200만 달러 (5.1%) 이다.
- 주력품목은 새우 : 10억 달러(40.1%) / 참치류 3억 3,470만 달러 (12.9%) / 연체류 2억 6,860만 달러 (10.4%) / 계 : 2억 5,660만 달러 (9.9%) / 해초류 : 1억 4,460만 달러 (5.6%) 이다.

### 다. 코로나 관련 동향 (8월 1일 기준)

- 인도네시아 전체 확진사망 현황
  - 누적 확진자 : 3,440,396명 (+30,738)
  - 회복 : 2,809,538명
  - 사망 : 95,723명 (+1,604)
- 백신 접종 현황
  - 총 접종대상자 : 208,265,720명
  - 1차 접종 : 47,562,344명 (22.84%)
  - 2차 접종 : 20,707,102명 (9.94%)
  - 7월 중순 최다 일일 확진자(약 6만명)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자바섬, 발리섬에서 주민활동제약 최고단계인 4단계를 시행 중.
- 한인 동포 코로나 관련 현황
  - 누적 확진자 351명/ 치료 중 66명(입원 5명, 격리 61명)/ 회복 180명/ 사망 18명/

##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페루 민대구 TAC 발표

- 조업 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수역 : 에콰도르-페루 국경수역 ~ 남위 07도선까지
- 총 TAC : 4만 8,212톤

- 학명 : Merluccius gayi peruanus
- 상업명 : Merluza

### 나. 영세 어선의 SPRFMO 수역 대왕오징어 어업 등록 허가

- 전장 15m 이하의 영세 어선 2척이 SPRFMO 수역 대왕오징어 조업 등록을 허가받았다.
- 이번 등록은 '21년 제9차 SPRFMO 총회에서 선박 등록의 보존 조치 및 발급 관련 수정안이 제시된 후, 합의에 도달한 첫 번째 사례이며, 추후 등록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영세 어선이 해당 수역 조업 등록을 하려면 선박 소유권 또는 소유자 증명 서류 제출 / 불법 조업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 / 선박 등록 증명서 / 선체 우현, 좌현, 선미현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다.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취임

- 7월 19일 페루 선관위에서 대선 결선투표 결과 페드로 카스티요 후보 당선을 발표했다.
- 카스티요는 페루 독립기념일인 28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 신임 생산부 장관에는 국회의원 출신의 Yvan Quispe Apaza가 임명되었고, 수산·양식 차관은 2020년 취임한 Ursula Desilu Leon Chempen이 계속 재임한다.

### 라. 코로나 관련 동향(8월 8일자)

- 확진자 2,124,128명. 사망자 196,873명.



- 1차 집중 8,254,969명(25.7%), 2차 집중 5,776,402명(18%)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PETROPERU	2.57달러/갤론	MDO	'21.8.6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관

**가. 중국의 파푸아뉴기니 진출**

- 중국인의 진출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근래까지 현지 수산업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국내경기의 지속적인 하락 및 코로나로 인한 국제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오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전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기존에 진출해 있던 중국인들이 불법 환전을 목표로 수매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듦과 동시에, 중국 어선들의 진출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어장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 파푸아뉴기니에는 One plus One의 시스템이 있다. 예를 들면, 한 현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10척의 배를 운영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용선 개념으로 다른 10척의 배를 들여와서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취득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도조차도 무시되어 조업선 한 척도 없는 회사가 갑자기 10척의 중국 어선을(참치 초저온선) 들여오는 경우가

발생했다. 심지어 연안 어업과 관련된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 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22년 총선 결과와 향후 코로나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며, 일반투자 관련 사항은 대사관에 문의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Banana 새우	600달러/키	11달러/kg
Tiger 새우	10psc/1.5kg	23.5달러/kg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7334달러/리터	Diesel	'21.8.4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 태평양 참다랑어 TAC 증량

### WCPFC, IATTC 작업반 회의서 합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7월 29일까지 온라인 합동 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2022년 태평양 참다랑어 TAC 증량에 합의했다. 일본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의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TAC는 일률적으로 15% 증가했다. 합의 내용은 10월 WCPFC 북방위원회를 거쳐 11월 29일~12월 7일 개최될 정기 총회에서 정식 결정된다.

일본의 참다랑어 TAC는 현재 소형어(30kg 미만) 4,007톤, 대형어 4,882톤이다. 이번 합의가 정식 결정되면 대형어 TAC는 이전보다 732톤 증가한 5,614톤이 된다. 기타 관련국 및 지역의 경우, 대만은 1,709톤에서 1,965톤으로 증가된다.

그 외에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모두 2022년부터 3년간 ①TAC 미이용분 이월을 상한을 5%에서 17%로 올리는 특례조치를 연장하고 ②소형어 TAC

의 10%를 1.46배로 환산해 대형어로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소형어 TAC 대체 조치는 현재 TAC의 10% 상한, 소형어:대형어 1:1 비율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북태평양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 국제과학위원회(ISC)가 이를 1.46배로 환산해도 문제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일본의 대체 상한은 400톤에서 585톤까지 증가한다. 한국은 소형어 TAC의 25%를 대체할 수 있다.

동부태평양 참다랑어의 경우, 2022년 미국-멕시코 TAC를 일률적으로 15%, 양국 합계 200톤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증가된 200톤의 배분은 8월 23~27일 온라인 방식 연례 회의에서 진행될 양자 협상에서 결정된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7월 31일자

## 1분기 동부태평양 선망선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

### FAD 황다랑어 증가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IATTC 수역 선망선 어획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만톤 이상) 감소한 35만 9,063톤을 기록했다. 2019년 어획량 35만 6,963톤과 비슷한 수치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약 2만톤 감소했다.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업계 대표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어획량 감소는 어선 계류 등 어획능력 저하로 인해 발생했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2만 3,472톤을 기록했다.

반면, 황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1만 4,000톤 증가한 14만 5,584톤으로 지난 3년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황다랑어는 대부분 FAD 어업으로 어획되었다.

국가별로는 가장 큰 선단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콰도르의 조업 실적이 저조했다. 멕시코와 에콰도르의 조업 실적 저조는 지난 몇 년간 이어져왔다. 반면, 파나마의 어획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어획량은 34%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9일자



## 日, 아카미(붉은살) 부족 현상 가속 (1)

### 수요 급증·출어 부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 존재

냉동 참치 아카미(붉은살)의 일본 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초저온 냉동고 부족 현상, 해외 어선의 휴어 증가, 세계적인 참치 어선 조업 효율 저하, 공급량 감소로 인한 품귀현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선원을 많이 배출하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력 부족이 발생해,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의 경우, 2020년 5월 kg당 600 엔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공급 부족 불안으로 사재기가 발생해 2020년 10월에는 700 엔까지 상승했고, 올해 3월 들어 가격이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다. 7월에는 900 엔에 도달했고, 8월 들어 950 엔까지 상승했다. 관계자들은 1,000 엔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요스 시장의 8월 초 40kg 이상 냉동 눈다랑어 kg당 단가의 경우, 고가품 1,700 엔, 중가품 1,050~1,100 엔, 저가품 950 엔으로 고가품 가격은 낮고 저가품은 비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산 눈다랑어 가격이 900 엔대까지 올라간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눈다랑어만 극단적으로 부족했고, 인도양에서 어획된 눈다랑어 품질이 높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 가격 상승은 코로나로 인해 외식소비가 감소하고 내식소비가 증가하면서, 대중적인 가격의 중소 눈다랑어에 수요가 편중된 것이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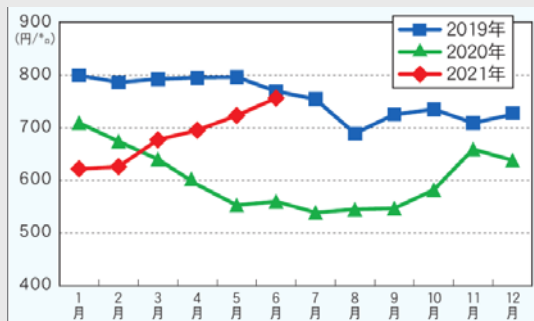
올해 가을에 입항하는 운반선 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고, 코로나로 인해 조업을 재개하는 어선 수도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도 재고가 회복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자원회복과 무관하게 원료 부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 활동 재개 국가 증가, 멕시코 양식 참다랑어의 미국 수요 증가, 대서양 참다랑어 현지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연말연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지중해 양식 참다랑어 또한 현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현지 관계자로부터 수입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8월 1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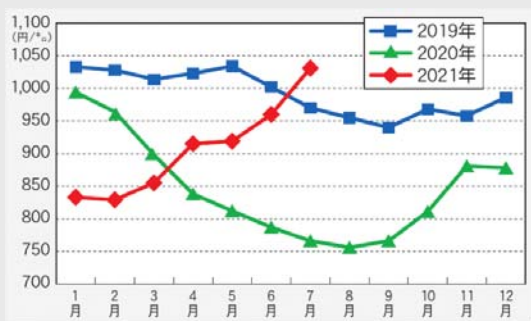
냉동 눈다랑어(대만산) 수입 단가(CIF)

(단위: 엔/kg)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40kg 이상) 서경·태평양산 중가품 가격

(단위: 엔/kg)





## 日 재무성, 6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냉동 1만 613톤, 88억 3,000만 엔 수입

2021년 1~6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누계	
날개 다랑어	한국	37	-	53	35	113	27	265
	대만	355	-	130	688	-	64	1,237
	바누아투	721	4	185	894	242	6	2,052
	기타	81	6	21	52	9	36	205
	소계	1,194	10	389	1,670	428	70	3,761
황다랑어	한국	266	318	309	380	458	412	2,143
	중국	321	205	655	253	326	254	2,014
	대만	844	1,211	1,531	1,702	1,304	1,102	7,694
	필리핀	-	19	150	198	171	204	742
	인도네시아	-	21	33	7	15	-	76
	미국	-	17	-	12	-	31	60
	바누아투	128	106	114	211	129	124	812
	피지	11	27	17	112	31	48	246
	키리바시	43	33	32	31	202	291	632
	마셜제도	104	-	54	-	25	-	183
	기타	1,286	1,440	1,236	569	625	1,003	6,159
	소계	3,003	3,397	4,130	3,477	3,286	3,469	20,762
눈다랑어	한국	85	32	308	158	168	296	1,047
	중국	587	271	1,125	573	327	549	3,432
	대만	1,509	2,427	2,661	2,627	1,909	1,487	12,620
	세이셸	469	1,123	826	376	460	292	3,546
	바누아투	156	319	510	576	328	55	1,944
	기타	145	63	59	99	22	95	483
	소계	2,951	4,236	5,489	4,409	3,212	2,774	23,071
남방참다 랑어	한국	354	-	-	-	-	40	394
	대만	56	32	50	23	2	5	168
	소계	410	32	50	23	2	45	562

※ 신선·냉장·필렛, 2020년, 참다랑어(태평양, 대서양) 수치 필요 시 문의 요망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8월 6일자



## 日 야이즈어시장, 1~6월 참치 양륙 누계 발표

총 7만 857톤 양륙...금액 175억 엔

일본 JF야이즈어협이 1~6월 야이즈어시장 참치 양륙 누계를 발표했다. 총 수량은 7만 857톤(지난해 동기 대비 0.8% 증가), 금액 175억 400만 엔(3.2% 감소), kg당 평균단가 247 엔(4% 하락)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원양 채낚기선 날개다랑어 어획이 감소했고, 해외 선망선 황다랑어 어획도 부진했다. 그러나 해외 선망선 가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했고, 원양 채낚기 어선의 동부 연안 가다랑어 어획도 호조를 보였다. 원양 연승선 참다랑어의 어기는 상승세를 보였다.

원양 참치가다랑어류의 경우, 연승선 어획 7,146톤(6% 증가), 54억 5,410만 엔(15.2% 증가), 원양 채낚기선 1만 4,117톤(2.9% 증가), 37억 319만 엔(1.9%

증가), 해외 선망선 4만 9,165톤(0.5% 감소), 76억 8,558만 엔(16.3% 감소)을 기록했다.

해외 선망선의 경우, 가다랑어 어획량은 4만 478톤(지난해 대비 1만 534톤 증가)을 기록했고, PS품(브라인 동결품 특별 선별품)의 증가세가 B품(브라인 동결품)에 비해 더 강한 추세를 보였다. 해외 선망선 황다랑어는 어획량 7,092톤(60% 감소), 금액 13억 600만 엔(68% 감소)로 대폭 감소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일본 내 냉동 가다랑어 생식 선 호도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판점 등의 판매량도 순조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26일자

## 세이셸 가다랑어, 낮은 어획량에도 가격 유지

톤당 1,140 유로...6월 말 대비 20달러 상승

세이셸의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가격은 현재 톤당 1,140 유로로, 지난 6월 말 대비 20 유로 상승했다.

원래 7월 어획량이 낮은 편이지만 올해 7월 어획량은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은 세이셸 항구에 도달하는 가다랑어 양을 봤을 때 세이셸 선망선의 조업이 다른 해역보다 나은 편이라고 전했다.

올해 황다랑어 어획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배정된 쿼터를 100%를 다 소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어획량이 적은 이유는 첫째, 올해 인도양 FAD 조업이 저조했고, 둘째, EU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 건선거(dry-dock)에 입거해야 함으로 어업 노력이 감소

했기 때문이다. 올해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지연된 건도 포함된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업자들은 스쿨 조업을 평년보다 늘리고 있다. 현재 세이셸 10kg 이상 냉동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2,000 유로로 지난 6월 말과 동일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해상 운임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인도양 참치 수요는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들은 스페인 구매자들이 운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불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도양 및 타 지역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업자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일자



## 대만, 2020년 중서부태평양 어획 저조 가다랑어·황다랑어 모두 어획량 감소

대만 선망선단의 2020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형·소형 연승선 어획량이 모두 하락했고, 특히 황다랑어가 크게 하락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에서 조업하는 대만 국적 참치 어선으로는 원양 선망선(DWPS), 대형 연승선(LTLL), 소형 연승선(STLL) 3가지가 있다. 대만이 WCPF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만 어선의 총 어획량은 19만 3,080톤으로 지난해 대비 약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선망선은 2020년 대부분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했고, 마이크로네시아-키리바시-투발루 EEZ와 공해에서 주로 조업했다. 이들의 참치 총 어획량은 15만 371톤으로, 2019년 대비 37% 감소했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2019년 대비 7만 9,000톤 하락한 12만 3,154톤에 그쳤다. 이는 2016~2020년 통틀어 가장 낮은 어획량이다.

대만 국적 선망선의 수가 2019년 30척에서 2020

년 28척으로 감소한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약 1만톤 감소한 2만 3,533톤, 눈다랑어 어획량은 100톤 증가한 3,684톤을 기록했다.

대만 국적 대형 연승선은 2019년 대비 7척 증가한 82척이 조업했으나, 참치 어획량은 9% 감소한 1만 1,862톤에 그쳤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40% 감소한 1,685톤, 눈다랑어 어획량은 16% 감소한 4,138톤을 기록했다. 남방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800톤 증가했으나, 북방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2019년 대비 큰 변화 없었다.

소형 연승선의 날개다랑어·눈다랑어·황다랑어 어획량은 도합 2만 2,643톤으로, 2019년 대비 7,723톤 감소했다. 주력인 황다랑어 어획량은 8,527톤으로 2019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만 국적 소형 연승선의 수가 2019년 723척에서 202년 710척으로 감소한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20일자

## 미국 국적 선망선 빠르게 감소

### 향후에도 감소 예상

미국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미국 국적 선망선은 2016년 37척에서 2020년 23척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참치선주협회(ATA) Brian Hallman 전무에 따르면 미국 어선은 태평양 조업 어선 중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 원양조업국과의 경쟁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선망선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사모아를 조업 기지로 투발루, 키리바시, 나우루 수역에서 주로 조업했다.

2020년 어획량은 13만 6,15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톤 가까이 감소했다. 어획량 중 가다랑어가 85%를 차지했으며 황다랑어(1만 989톤), 눈다랑어(9,451톤)가 뒤를 이었다.

\* 기사 출처: 2021년 7월 29일자



## 中 태평양 선망·연승선단, 수년간 감소 중 선박 수어획량 모두 감소 추세

중국 중서부태평양 선망·연승선단이 규모 확장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축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1년 최초로 중서부태평양 선망어업에 진출했다. 중국 선망선 척수는 '09~'13년 동안 꾸준히 12~14척을 유지했고, 최근 수년간 일부 노후 선박이 신조선으로 교체되었다. 2016년 16척으로 최다치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14척(태평양 도서국 용선 13척, 이외 1척)이 조업했다. 2020년 연승선 척수는 354척으로, 2016년 대비 64척이 감소했다.

선망선단의 어획량은 2016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16척이 1만 5,475톤, 2020

년에는 14척이 6,485톤의 참치를 어획했다.

중국의 지난해 냉동 참치 태국 수출량은 3만 5,513톤으로,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가 각각 1만 4,000톤, 황다랑어 7,061톤, 눈다랑어 337톤을 기록했다.

연승 어업의 경우, 2020년 전체 연승선 354척으로 이 중 263척(이 중 208척이 200~500톤급)의 주 어종은 날개다랑어이다. 이보다 소형인 30척은 횡감용 참치를 어획한다. 나머지 연승선은 모두 500톤급 이상으로 초저온 냉동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 어종을 어획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중국 연승선 총 어획량은 3만 8,714톤으로, 2019년 대비 7%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26일자

## 푸젠성 원양어선에 새로운 보조금 제공

### 신조 자금 15~60만 달러 지원

중국 푸젠성이 대규모 원양 어선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을 발표했다.

푸젠성 정부는 '푸젠성 원양어선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8대 조치'라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푸젠성은 현 시점부터 2023년까지 원양어선을 50척 늘려 650척 달성을 목표로 한다. 어획량 목표는 2023년에 공해상에서 65만톤을 잡는 것이다. 현재 어획량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푸젠성에 소재한 주요 어업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된 Pingtan Marine사와 모리타니아를 주요 어업기지로 하는 Poly Hong Dong사이다. 두 업체를 포함한 푸젠성 소재 기업은 100~400만 위안

(15~60만 달러)의 어선 신조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형 참치 선망선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신조선의 조업 구역은 대서양, 태평양, 남극해로 지정되어 있다.

푸젠성 정부 문서는 또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관할 선박이 외국 관련 규정과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푸젠성 정부는 선박의 정보화를 요구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선박은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중국형 GPS 시스템인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7월 23일자



## 어업 강제노동, 국제적 논의 시작

### WCPFC 선원 노동기준, 이르면 11월 통과 전망

어업 노동문제에 대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에서 어선 선원 노동 기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7월 13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르면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 사건 이후 WCPFC에 선원 노동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이후 이 안건은 지난해 9월 기술이행위원회를 거쳐 12월 연례 정기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 되었으며 올해 7월 초안이 제출되는 등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WCPFC에서 논의 중인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안건은 2016년 채택된 「오퍼버 안전에 관한 보존관리조치」가 원안이다. 조치의 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하선귀국 기회 제공, 최저연령 15세 이상 등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확보와 행방불명 또

는 추락 시 7시간 수색, 사망 시 대응 정도 등이 있다.

해당 안건은 WCPFC 워크숍에서 나온 수정사항을 반영해 오는 9월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재검토된 후, 11월 연례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정식으로 통과된다면 규정을 무시한 어선은 불법 어선으로 간주되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WCPFC 정기총회에서 어업 노동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 소관이라는 이유로 안건 논의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워크숍에 참석한 ILO 관계자는 WCPFC 내의 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동시간이나 항해 일수 등이 규제 대상이 되면, 한국과 일본 등의 원양어업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WCPFC 외에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 해당 사안을 다루겠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8월 5일자

## 미국, 피지 강제노동 참치어선에 수입 중단 조치

### 강제노동 수산물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

피지 Suva에 본사를 둔 Hangton Pacific사 소유 참치 연승선 Hangton 112호는 선상 강제 노동 혐의로 인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억류 조치 명령을 받았다.

해당 명령에 따라 모든 미국 기관은 Hangton 112호가 어획한 참치 등의 어획물을 압류한다.

CBP는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Hangton 112호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11개 지표 중 임금 체불, 채무노동(debt bondage), 신원서류 보

관 등 최소 3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Troy Miller CBP 국장대행은 「Hangton 112호와 같은 외국 어선은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강제 노동에 끌어들여 수산물을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미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라고 말했다. Miller는 CBP가 비윤리적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미국 유입을 차단해 이들의 가혹한 노동 관행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8월 4일자



## 스페인 OPAGAC, 강제노동 참치 퇴출 목소리 높여 ILO 노동기준 충족 인증 로고 도입, EU에 요구

스페인 대형참치냉동선생산자연합(OPAGAC)은 비 인도적·불법적 어선에서 어획된 참치의 반입을 막기 위해, 스페인의 사회적 책임 로고인 APR AENOR 로고를 EU 참치 수입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장 보호무역 강화 및 경쟁자 배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APR AENOR 로고는 선박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충족을 인증한다. 현재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65척의 어선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OPAGAC는 EU 시장이 중국, 동남아 등지의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된 참치를 매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아시아 선단이 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예 노동과 아동 착취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데도 EU가 이

를 외면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아시아 선단 참치 수입은 2012년 5%에서 2019년 53%로 증가했다.

OPAGAC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OPAGAC는 EU의 자숙참치 로인 수입에 적용되는 자율할당관세(ATQ)를 논의할 때, 중국산 로인이 EU 참치 시장에 있어 해악이며 전적으로 EU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OPAGAC는 이제 APR AENOR 로고를 모든 EU 참치의 기준으로 삼는 안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스페인 가공업자들은 어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OPAGAC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가공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로인 매입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28일자

## 인도네시아, 국제 수역 연승선 확대 계획 발표 증가한 쿼터 활용 일환

쿼터 증가와 지속가능한 참치 어업 5개년 계획(2021~2025)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가 국제 수역에서 참치 선단을 확장하고 있다고 글로벌 환경전문 매체 몽가베이 뉴스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수산부는 국제 수역에서 조업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참치 연승선 확대를 포함한 참치 및 고등어의 지속가능한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산부는 이 계획의 발표 시기를 8월말로 잡고 있다.

연승선 확대 계획은 인도양참치위원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남방참다랑

어보존위원회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에서 증가한 인도네시아 어획 쿼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5개년 계획에는 국내 참치 어업의 지속가능 인증 확대, FAD 제한, 선박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세계에서 참치 어선과 어획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연승선과 가다랑어 채낚기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Undercurrent News, 7월 23일자



## 2021년 상반기 세계 참치캔 수요 침체

### 태국 수출량,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감소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참치캔 수요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최종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재고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발표된 태국 세관 수출 자료에서 드러났다. 태국 참치캔 수출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30개국에서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태국 참치캔 수출량은 22만 2,257톤으로, 2020년 동기 대비 약 25%, 2019년 대비 약 19% 감소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36%나 감소했다. 이는 20피트 컨테이너 약 1,445대 분량의 참치캔이 더 적게 수출되었다는 의미로, 2019년 수출량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이집트는 참치캔 수요가 증가한 예외적 사례 중 하나이다. 이집트의 구매량은

3만 3,692톤으로 지난해 대비 20%, 2019년 대비 1만 3,000톤 증가했다. 그러나 타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수출량은 크게 감소했다.

소규모 수출국가 대상 수출량 총합은 4만 2,362톤으로 2020년 대비 1만 8,000톤, 2019년 대비 1만 톤 감소했다. PNG, 남아공,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의 수요가 예외적으로 증가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크게 감소했다.

해운 운임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고, 소매 판매 둔화 또한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역 상황은 근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태국을 비롯해 에콰도르, 필리핀 등 주요 참치 생산국 수출량이 2019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4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10일자

## 태평양 10개 도서국 참치, 2050년 20% 감소할 수도

### 기후 변화수온 상승 영향으로 참치 이동 추세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Johann Bell이 이끄는 전문가 팀은 분석 모형을 사용해 2050년까지 참치 자원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예측한 결과 동쪽 팔라우부터 서쪽 키리바시까지 태평양 10개 도서국에서 평균 어획량이 20% 줄어들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Nature Sustainability에 실렸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어획량 감소는 해당 태평양 도서국에 연간 1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연간 정부 수입의 17%를 잃게 될 수도 있다.

Bell에 따르면 수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참치는 공해가 포함된 동쪽 수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 기사 출처: Conservation International, 2021년 7월 29일자



## MSC, 중서부태평양 어업 인증 중단 경고

### WCPFC 지속가능성 조치 합의 없으면 2023년 인증 정지

해양관리협의회(MSC)는 어획 전략 및 어획 통제 규칙(HCR)에 대한 합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전세계 MSC 인증 참치의 73%를 생산하는 중서부태평양 22개 어업에 대한 인증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SC 인증을 받은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은 인증시 조업국들이 어획 전략 및 통제 규칙의 개발을 통해 공유 참치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도모하는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는 제한적 조건 하에 인증되었다. 그러나 MSC는 이 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CPFC는 2022년 12월까지 새로운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1년 12월에 있을 연례 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필요하다. MSC는 관리 조치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3년 6월 독립 평가기관에 의해 인증이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MSC 인증 어업인 PNA 어업이 중서부태평양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인증을 보유한 PNA 어업은 중서부태평양에서 스쿨조업 비중 증대와 참치 자원 보존에 큰 기여를 했고, 선박조업일수 제도(VDS) 등 성공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갖췄다.

WCPFC는 어획 전략 수립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4월 워크숍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태평양 참치 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 규정과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구체적 조치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MSC가 PNA 당사국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고 인증을 정지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만일 MSC가 인증 정지를 강행할 경우, PNA는 지속가능 참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Undercurrent News  
2021년 7월 27일자

## 마이크로네시아 3개 기업, 참치 선망어업 MSC 인증

### 자국 EEZ·WCPFC 공해 모두 적용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조업하는 3개 어업 회사 참치 선망어업이 해양관리위원회(MSC) 인증을 취득했다.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자원청(NORMA)의 지원을 받은 Liancheng Overseas Fishery사, Caroline Fisheries사, Da Yang Seafoods사 등 3개 선망어업 회사는 12개월간 진행된 평가를 마치고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업 MSC 인증을 취득했다.

해당 인증은 마이크로네시아 EEZ와 중서부태평

양수산위원회(WCPFC) 공해에 모두 적용된다.

Liancheng사는 마이크로네시아에서 20년 이상 어업, 가공업, 육상 환적 등의 사업을 운영해 왔다. Caroline사는 선망선 6척과 그물 재활용 시설, 선적 대리 사업을 운영 중이다. Da Yang사는 선망선 6척, 1,500톤급 냉동냉장설비, 로인 가공공장을 보유 중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6일자



## 스페인 OPAGAC, 최초 글로벌 MSC 인증 난항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 회복이 걸림돌

인증평가기관 Lloyd's Register가 스페인 참치생산자협회(OPAGAC)의 MSC 인증 평가에 대한 공개 의견 초안 보고서(PCDR)를 발표했다.

OPAGAC는 지난해 8월 대서양, 인도양, 동부서부태평양 열대 참치 FAD·스쿨 선망 어업의 MSC 인증 취득을 위한 대규모 절차를 시작했다. 평가는 12개의 UoA(Unit of Assessment, 평가 단위)가 대상이며, 3가지 핵심 원칙인 자원 보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채점한다.

Lloyd는 첫 번째 원칙에 해당되는 OPAGAC의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 회복 및 어획통제규칙(HCR)에 낙제점인 60점을 부여했다.

OPAGAC는 인도양 가다랑어·눈다랑어에 대해 합격점을 받았으나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Lloyd는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 두 종에 대해 잘 정의된 HCR을 갖추는 것을 포함, 12가지 구속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황다랑어의 경우, 최대지속생산량(MSY)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8가지 비구속적 조건을 제시했다.

동부태평양 황다랑어의 경우 모든 원칙에서 MSC 인증 기준을 잠정 충족했으나, 눈다랑어와 가다랑어는 첫 번째 원칙에서 80점 미만을 기록했다. Lloyd는 자원 상황, 자원 회복, 어획 전략, HCR 등 눈다랑어와 가다랑어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중서부태평양 수역 평가의 경우, 모든 UoA와 원칙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Lloyd는 멸종위기 상어종의 사망률에 대한 정량적 정보 제공을 포함한 8가지 조건, 영향 최소화를 위한 FAD 배치 및 모니터링 전략 수립을 비롯한 2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대서양 수역 평가의 경우, 황다랑어와 가다랑어는 모든 원칙에서 MSC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눈다랑어는 첫 번째 원칙에서 80점 미만을 기록했다.

OPAGAC가 계획대로 인증 취득에 성공한다면, 이들은 다른 어떤 어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초의 글로벌 MSC 인증을 보유하게 된다.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19일자

## 프랑스 CFTO, 인도양 가다랑어 MSC 인증 취득 세이셸·모리셔스·마요트·TAAF 조업 8척 대상

프랑스 참치 연승어업 회사 CFTO가 인도양 가다랑어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취득했다.

해당 인증은 세이셸을 거점으로 세이셸·모리셔스, 마요트,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TAAF)

EEZ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선박 8척의 조업 활동을 포함한다. 연간 어획량은 약 3만 톤이다.

인증 및 평가 기관은 Control Union UK Ltd.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7월 16일자

## PNA, FAD 어업 MSC 인증 추진 중 스쿨조업 한정 인증에서 FAD까지 확대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기간 연장에 대한 적합성평가기구 의견보고서 초안이 발표되었다.

PNA 어업은 2011년부터 MSC 인증을 보유해 왔으나, 이는 스쿨조업 어획 참치에만 해당되었다. 지난해 MSC는 선망선이 같은 향차에 인증 참치와 비인증 참치를 함께 어획하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PNA 9개 당사국은 FAD 어업도 MSC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MSC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그 결과, PNA는 MSC 인증의 범위를 FAD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PNA가 현재 추진 중인 인증에는 선망선 FAD로 어

획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와 선박조업일수 제도(VDS)의 적용을 받는 전 PNA 당사국 참치 어선의 EEZ상 조업이 포함된다.

평가를 진행한 기관인 Lloyd's Register는 보고서 초안을 통해, PNA가 보유한 중서부태평양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옵서버의 높은 감시 수준을 호평했다. 그러나 Lloyd's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에 어획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과, 보호종인 가오리류의 혼획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해관계자들은 8월 15일까지 인증에 대해 의견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21일자

## 쿱제도, 스페인 어선에 EEZ 개방 유지 EU와 SFPA 3년 연장 합의

쿱제도 정부와 EU는 곧 만료 예정인 양국 간 지속가능한 수산업협력협정(SFPA)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U가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EU는 쿱제도에 향후 3년간 400만 유로(약 55억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새 협정에 따르면 현재 쿱제도 EEZ에서 조업 중인 스페인 선망선 4척은 해당 해역에서 연간 100일까지 조업할 수 있고, 110일간 더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새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의 협약에 따르면 스페인 선망선 4척은 연간 7,000톤의 참치를 어획할 수 있다. EU는 그 대

가로 쿱제도에 연간 36만 7,500 유로의 조업 보상금을 지급하며, 쿱제도 수산정책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간 35만 유로를 지급한다. 또한 어업자는 협정 첫 해에 어획량 톤당 55 유로, 두 번째 해에 톤당 65 유로, 세 번째 해부터 톤당 70 유로를 지불한다.

현재 쿱제도 EEZ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은 스페인 대형참치냉동선생산자연합(OPAGAC) 산하에 있다. OPAGAC는 해당 수역에 초점을 맞춘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에 참여 중이며, 현재 쿱제도 어업 MSC 인증을 추진 중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28일자



## EM, 연승선 과소보고 방지 효과 증명

### 항해일지 대비 정확한 어획 정보 제공

Nature Conservancy, the Australian institutes Coastal and Marine Research Centre,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Coral Reef Studies, Asia Pacific Resource Centre의 연구원들이 참여한 합동 연구팀은 지난 7월 10일 ‘서부태평양 참치 연승어업 책임 향상을 위한 전자모니터링 (Electronic monitoring for improved accountability in western Pacific tuna longline fisheries)’이라는 표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자모니터링(EM) 기술을 탑재한 어선 15척, 98회 항차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어선 조업수역은 마셜제도,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EEZ이다. 데이터는 태평양공동체(PSC)로부터 제공 받은 EM, 항해일지 및 옵서버 기록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해 일지와 EM에 탐지된 어획 기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차이가 심했던 기록은 팔라우 수역 황다랑어에 관한 보고이다. EM에 탐지된 어획량이 항해일지에 보고된

양보다 1.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획물 폐기의 경우, 참치·새치·거북 등의 폐기는 항해일지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나, EM과 옵서버를 이를 파악했다.

또한 EM은 항해일지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은 종류의 어획 어종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에 탐지된 내용에 따르면 1회 투승 시 평균 8~10종이 어획되나, 항해일지에는 항상 8종 미만으로 보고되고 일반적으로 5종만 보고되었다.

해당 연구는 EM이 옵서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태평양 연승어업 관리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EM 보급 확대에는 시스템 비용, 설치, 유지보수, 데이터 검토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현재의 옵서버 감시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EM 사용 및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26일자

## 상반기 베트남 참치 수출액 21% 성장

###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성장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참치 수출액은 3억 5,500만 달러로 21% 성장했다.

이 중 미국 수출액은 1억 5,300만 달러로 21%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미국의 식품 서비스 체인 및 호텔의 재개방에 따른 수요 증가이다. 베트남은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참치 공급국이다.

베트남의 EU 참치 수출도 계속 호황을 누리며 올

해 상반기 수출액은 7,400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31% 증가했다. 특히 6월 수출액이 49% 증가했다. 스페인 수출은 6월에 971% 성장하며 EU 내부에서 세 번째로 큰 베트남 참치 수입국이 되었다.

이외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201%), 멕시코(53%), 러시아(70%), 우크라이나(100%), 레바논(35%), 아르헨티나(79%) 등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8월 2일자



## 태평양 국가 장관, 선원 백신 접종 우선시 촉구

### 주요 허브항 접종 시작, 아직 속도 느려

태평양 국가 장관들이 선원 대상 우선 백신접종을 촉구했다.

지난 5일 개최된 태평양수산위원회(FFA) 제18차 장관급 포럼에서, 각국 장관들은 어선을 운항하는 기국과 FFA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옵서버, 선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참치 어선 승선 선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마셜 제도는 외국인 선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백신 공급 한계로 접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참치 허브인 세이셸은 4월 외국 선원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세이셸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55세 이상에게만 권고하고 있어 프랑스 선원의 대다수인 55세 미만은 접종을 받지 않았다. 스페인 참치생산자협회(OPAGAC)

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이 자국이나 세이셸과 같은 연안국 항구에서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에콰도르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에콰도르 참치어선협회(ATUNEC)는 7월 9일 11개 참치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치 연승 및 선망선 선원들에게도 만타항에 도착하는데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 해운 업계는 컨테이너선과 기타 화물선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너무 느리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선원들의 백신 접종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운업 종사 선원들에게 충분히 빨리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 세계 해상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15일자, 8월 10일자

## 마셜 제도, 항만 통제 강화 검토 중

### PSMA 비준...IUU 근절 목적

마셜 제도는 IUU 어업을 겨냥한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인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의 당사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국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이미 IUU 어업 근절을 위한 5개년(2020~2025년) 국가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바 있다.

PSMA 이행의 일환으로, 마셜 제도 해양자원국(MIMRA)은 5년마다 IUU 근절 계획을 검토할 예

정이다. PSMA 비준 국가는 IUU 어업 참치 및 수산물에 자국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IUU 수산물의 국내외 시장 진입 근절을 도모한다.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인 팔라우와 바누아투도 현재 PSMA 당사국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19일자



##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수출 가격 급락

### 이빨고기는 수출량 증가, 수출 가격 하락

아르헨티나 수산업&냉동선 선주 회의소(CaPeC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출은 23만 6,000톤, 8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스페인과 중국이다.

일렉스 오징어 수출 가격은 모든 시장에서 25~30% 하락했다. 중국 수출은 2019년 상반기 5만톤, 2020년 상반기 5만 7,000톤에 비해 올해 상반기 2만 2,000톤으로 감소했으며 평균 가격도 24% 하락했다. 한국 수출은 3만톤으로 중국보다 많았다. 하지만 평균 가격은 톤당 1,930 달러로 스페인 수출 가격 톤당 2,670 달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오징어 수출은 수출량 10만 2,505톤으로 8.6% 감소했고 수출액 기준 30.8% 감소했다. 톤당 평균 수출 가격은 2,046 달러이다.

아르헨티나 민대구(Hake hubbsi) 필렛 수출량은 2만 8천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출액은 7,700만 달러로 5% 감소했다.

필렛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냉동 민대구 수출은 수출량 1만 4,458톤으로 지난해 대비 1.2% 감소했으며 금액 기준 1.4% 증가한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평균 수출 가격은 1.4% 증가했다.

이빨고기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총 1,378톤 수출되었고 평균 수출 가격은 16% 감소했다. 미국 수출은 829톤으로 평균 가격이 톤당 1만 3,390 달러로 지난해보다 34% 하락했다. 반면 중국 수출은 40톤에서 280톤으로 증가했고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2.6% 상승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8월 7일자

## 포클랜드, 감염병 통제 규정 개정

### 8월 8일부터 1년 간 적용

포클랜드 감염병 통제 규정이 최근 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8월 8일부터 적용되어 1년 간 유지되며 2개월마다 재검토된다.

변경 사항

- 기본 격리 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영국에서 비행기로 포클랜드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 5일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 다른 국가에서 비행기로 도착하는 경우 도착 3일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 예방 접종 및 음성 확인 여부에 따른 기존 5일, 8일 격리 기간 완화는 영국에서 도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도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 바다를 통해 도착하는 경우에도 5일, 8일 격리 기간 완화 기준 적용
- 포클랜드 제도 항구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이나 선박과 접촉하지 않은 경우 선박에 승선해 해상에서 보낸 시간은 격리 기간으로 계산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8월 7일자



## 日 연구원, 남미 오징어 자원 현황 설명

### 대왕오징어 풍어 예상...빨강오징어 다소 감소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관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아보 준이치 주임연구원은 지난 8월 6일 도쿄에서 개최된 강연에서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와 빨강오징어 자원 상황 및 각국 어획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아보 주임연구원은 올해 페루에서 어획되는 대왕오징어는 풍어가 예상되지만, 일본에서 여름~가을 동안 어획하는 빨강오징어 어획량은 조업척수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페루의 자원 조사 결과에서 자국 해역 자원 상황은 건전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페루에서 2021년 5월까지 어획한 냉동 대왕오징어 누계는 약 21만 6,000톤으로, 아보 주임연구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배의 페이스로 어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지는 EU이지만, 높은 어획량으로 인해 일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아보 주임연구원은 주로 동경 175도 동쪽 지역 북서태평양에 분포하며 여름~가을에 걸쳐 어획하는 빨강오징어 '가을 출생군'의 경우, 최근 수 년 동안 자원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올해의 자원 상황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 어획량 급증으로 인해 향후 자원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일본의 빨강오징어 어획량은 조업 척수 감소로 자원 상황과 무관하게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주로 동경 175도 서쪽에 분포하고, 중국 선단이 가을~겨울에 걸쳐 어획하는 빨강오징어 '겨울~봄 출생군'은 자원 상황이 저조하다. 아보 주임연구원은 이 출생군의 자원 상황이 『올해에도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8월 11일자

## 국제적 오징어 IUU 방지 단체 결성

### 세계 각국 오징어 생산·공급업체 협력

스페인 Congalsa 외 2개 기업, 호주 Bidfood, 영국 Sea farm Ltd., 캐나다 Export Packers, 미국 Netuno 외 6개 기업 등 전세계 다수 기업은 오징어 IUU 근절 워킹 그룹을 새롭게 결성했다. 해당 기업들은 전세계 오징어 공급망의 IUU 오징어 어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IUU 관련 오징어 제품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그룹은 지속가능 수산업 파트너십(SFP)의 기술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SFP는 수산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 및 양식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전세계 어업 커뮤니티에 지속가능한 경제

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수산물 공급망과 협력할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단체이다.

해당 그룹의 미국 기업들은 향후 수개월 간 국제적 협력 단체와 독립적인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IUU 어업 또는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된 오징어를 배제하고, 오징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고객 및 공급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작업 계획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그룹은 올해 하반기 전세계 오징어 생산·공급업체들의 추가적인 동참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7월 19일자



## 명태 공모선, 수익성 위기

### 기후변화, 러시아 명태 어선 신조 원인

명태 트롤선 선상가공업은 명태의 인기, 규모,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미국-러시아 업체들은 이자 및 세전이익 (EBIT) 27%의 높은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나 런던 소재 금융 싱크탱크인 Planet Tracke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성이 점점 위협받고 있다.

Planet Tracker의 연구 보고서 "Pollockonomics"에 따르면, 명태 생물군을 더 차가운 바다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온난화와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트롤선단 투자로 인해, 명태 공모선의 수익성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비영리 어업 연구 분석가인 Francois Mosnier는 수온 상승 및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미국 명태 자원이 알래스카 수역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해 러시아 수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최근 처음으로 러시아 북극해 일부 수역에서 상업적 명태 어업을 허용했다.

Mosnier에 따르면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미국 업계에서도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체의 대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snier는 또한 앞으로 러시아의 명태 쿼터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 EEZ에서 미국 선단이 러시아군에게 위협을 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사건이 있었다. Andreas Osthagen 북극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충돌이 TAC 협상 결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lanet Tracker는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선박 개조 자금 활용, 기후 변화 대응책 마련, 강력한 추적가능 시스템 구축, 노후화되고 지속가능성 낮은 선박 퇴역, 실제 어획 톤수 공개, 러시아 기업의 북극 어업 쿼터 입찰 자제 등을 제시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7월 22일자

## 러시아 8월초 냉동 어류 가격 하락

### 극동 지역 명태 가격 4.1% 하락한 70 루블

8월 2일부터 8일까지('21년 31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현물 대량거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 지역에서 태평양 명태 가격은 30주차에 비해 4.1% 하락한 kg당 70 루블, 대구 가격은 1.8% 하락한 160 루블, 태평양 청어는 3.3% 하락한 kg당 58 루블을 기록했다.

북서부 지역에서 대서양 고등어 가격은 kg당

140 루블로 9.7% 하락했다. 해덕대구는 kg당 140 루블, 청어는 kg당 102 루블, 대구는 kg당 210 루블로 변동이 없었다.

중부 지역 명태 가격은 1.1% 하락한 kg당 90 루블, 대서양 고등어는 3.2% 하락한 kg당 150 루블이었다. 대서양 청어는 kg 당 110 루블을 유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10일자



## 러시아, 명태·연어 철도 운송 보조금 고려 공급 과잉, 수산물 인플레 우려에 대한 해결책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정부가 명태와 연어의 소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극동 지역에서 철도로 명태와 연어를 운송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서부

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10만톤의 명태와 연어를 운송하는데 4억 루블(540만 달러)의 보조금이 소요될 수 있다. 수산청은 보조금 지급으로 소매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7월 30일자

## 러시아 Gidrostroy사 MSC 필렛, 수리미 생산 계획 쿠릴 열도 명태 어업 MSC 승인 임박

쿠릴 열도 트롤 어업과 외끌이 기선 저인망 명태 어업에 대한 MSC 승인이 임박했다.

러시아 Gidrostroy사는 자사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약 5만톤의 명태 필렛 및 수리미에 MSC 라벨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idrostroy사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러시아

사할린주 시코탄섬(Shikotan)에 대규모 공장을 2019년 건설했다. 이 공장의 명칭은 Krabozavodsk로 하루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3개의 공장과 2개의 부두를 갖추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5일자

## 러시아 RFC, 자국 공급업체에 명태 연육 첫 공급 공급업체 KVEN, 자체 품질 시험에서 호평

러시아 최대 흰살생선 생산업체 중 하나인 RFC가 자국 수산물 공급업체인 KVEN에 처음으로 연육을 공급했다.

KVEN 총괄이사 Evgeny Morgunkov는 RFC 연육에 대한 자체 품질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며,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Morgunkov는 차후 연육 제품 공급의 대부분을

러시아 공급업체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RFC는 Viciunai, Meridian, KVEN, Santa Bremor 등의 업체와 최초로 명태 연육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RFC는 올해 4,000~5,000톤의 연육을 생산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Intrafish, 2021년 7월 21일자



## 알래스카 명태 어업, 차후 수 주 조업 노력 증가 전망

### 명태 크기 초반보다 커져...인력 부족·운임 상승 문제

알래스카 명태 어업 B시즌이 6월 6일 시작된 이후 거의 2개월 지난 현재, 알래스카 어업자들과 가공업자들은 차후 몇 주 동안 조업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 중이다.

올해 초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인한 연안 가공장 폐쇄 조치 이후 PBO 필렛(가시 제거) 생산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지만 딥스킨 필렛(껍질과 지방층 제거)과 PBO 필렛(가시제거) 모두 재고가 부족한 상태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PBO의 경우 톤당 3,900달러(3,289 유로)로 기록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딥스킨 필렛은 PBO 필렛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7월 10일까지 B시즌 PBO 필렛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딥스킨 필렛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약간 증가했다. 이러한 명태 가공품 생산 추세는 A시즌 종료 시점에 생산자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양호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B시즌 미국 선단의 조업 노력

은 차후 몇 주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한 지난해 B시즌의 경우 명태 쿼터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전량 소진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자료에 따르면, 이번 B시즌 베링해 명태 쿼터는 아직 48만 9,337톤이 남아 있다. 명태 생산자들은 전세계적인 흰살생선 수요 증대 및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B시즌 PBO 블록 생산 증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소식통들은 운임 급상승, 연료비 및 인건비 증가가 명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명태 사이즈는 300~450g 정도이다. 6월 250~350g 보다 약간 커졌지만 여전히 작다. 가공업체들은 어획한 명태 사이즈가 작아 필렛 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상품성이 낮은 소형 명태의 경우 어분으로 가공하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7월 27일자, IntraFish, 2021년 7월 16일자

## 명태, 가장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

###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 연구 결과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는 자연산 알래스카 명태 필렛의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단백질 kg당 3.77kg CO<sub>2</sub>-eq(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대입한 수치)이라고 밝혔다.

이는 닭고기(12.502), 자연산 대서양 대구

(30.602)와 같은 다른 공급원 보다 낮다.

GAPP는 2년 전부터 지속가능성 컨설팅 회사 Quantis와 협력해 전과정 평가(LCA)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 기사 출처: New Food, 2021년 7월 26일자



## 러시아산 명태 중국 가공, 회복 불가능할 수도

### 임금 상승으로 중국 가공 이점 사라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냉동수산물 수입 규제로 인해, 1~5월 중국의 러시아산 냉동 명태 원료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인 10만 500톤으로 급감했다.

러시아 수산물유통가공협회 알렉산드르 파민 상무이사에 따르면, 러시아산 명태의 중국 가공 산업은 규제 외에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다시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파민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임금 상승으로 중

국 기업이 명태를 매입·재가공하는 사업의 경제적 이점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 결과, 갈 곳을 잃은 명태 제품이 러시아 냉동 창고에 과잉 재고로 남아 있게 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태평양 연어송어 조업이 6월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러시아 창고 부족 문제가 한층 심화되었다. 업계는 중국 공급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대 3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8월 5일자

## 日 미국산 명태 연육 가격, 13년만의 최고가

### 비용 상승·A시즌 생산량 감소 등 원인

일본 어묵의 주 원료인 미국산 냉동 명태 연육의 일본 내 가격이 4~5월 대폭 상승해, 7월 상순 현재까지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중상급품의 일본 내 소규모 수요 인도 가격(기업 간 거래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거래의 가격)은 3월 대비 kg당 50엔 상승해 12년만의 최고가, 하급품 kg당 40엔 상승해 13년만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명태 흥어로 인한 연육 생산 감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본 내 반입 지연과 생산자의 비용 증가, 미국 내 인건비 및 운임 상승 등이 가격 상승의 배경이다. 코로나 사태로 실내 활동이 증가해 일본과 세계 각국의 가공 어육 수요가 증가한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2020년 미국산 냉동 명태 연육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21% 감소한 8만 3,718 톤으로,

2011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들어 공급 감소가 더욱 심해져 냉동 명태 연육 1~5월 누계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감소한 2만 6,843 톤에 그쳤다.

연육 생산량은 7월 3일자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 증가한 9만 8,274톤이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A시즌 명태 개체 사이즈가 고르지 못했고, 살이 적은 개체가 많았기 때문에 상급품의 생산은 감소했다. 더구나 일본에 냉동 연육을 반입하는 컨테이너선의 입항 스케줄이 늦어져 일본 내 수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6월 10일 시작된 B시즌의 성어기인 8~9월 어획량이 주목받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7월 15일자



## 일본수산, 명태 단백질 활용 제품 다수 출시 면·어묵·어육 등 다양한 형태

명태 단백질 효능 연구 및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수산주식회사(이하 일본수산)가 7월 15일 가을겨울 신제품을 발표했다. 신제품 중에는 '속근 단백질(速筋タンパク)'이라 불리는 명태 단백질 활용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생선으로 만든 면' 제품은 면과 건더기를 전자레인지에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 식품으로, 270g당 명태 단백질 4.5g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닭가슴살처럼 미리 조리된 명태살 한 덩이를 전자레인지에 30초간 조리해 섭취 가능한 제품을 비롯, 어육과 어묵 제품도 다수 출시되었다.

일본수산은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대학과 협력해 명태 단백질의 효능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특별히 강도 높은 운동 없이 하루 4.5g의 명태 단백질 섭취만으

로 20대 여성의 다이어트 및 60대 이상 노인의 근력 감퇴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과, 10대 운동부 고교생의 근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19일자  
일본수산주식회사 보도자료

## 미국 정부, 또 다시 대규모 알래스카 명태 구매 추진 이번 회계연도 구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7월 29일 연방 식량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할 약 8백만 파운드의 냉동 알래스카 명태 필렛 입찰에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에 따르면 이 입찰이 진행될 경우, USDA의 이번 회계연도 알래스카 명태 구매는 1,830만 파운드, 4,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구매 금액은 2,500만 달러이다.

GAPP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USDA의 알래스카 명태 구매액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해가 될 것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7월 30일자

# 2021년 콩치 장기 어황 전망

## 지난해 이상, 2019년 미만 예상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관은 7월 30일 콩치 장기 어황 예보를 발표했다. 해당 예보에 따르면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에서 조반(常盤) 해역의 내유(회유)량은 역대 최소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는 많지만, 역대 2번째 최소 수준이었던 2019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어장은 9월 하순 이후 공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많지만 2019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올해에도 흥어가 예상된다.

6~7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8~12월 어획 대상이 되는 어군 군집 해역(경도 180도 이서)의 콩치 분포량은 45만 톤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사 규모가 축소되어 분포량을 추정할 수 없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저치이다.

해당 기관 담당자는 경도 180도 이서 콩치 분포량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로, 정어리·참고등어 서식 지역이 넓어지고 콩치가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는 분포 지역 변화 현상 발생, 외국 어선의 콩치 자원 어획 비율 상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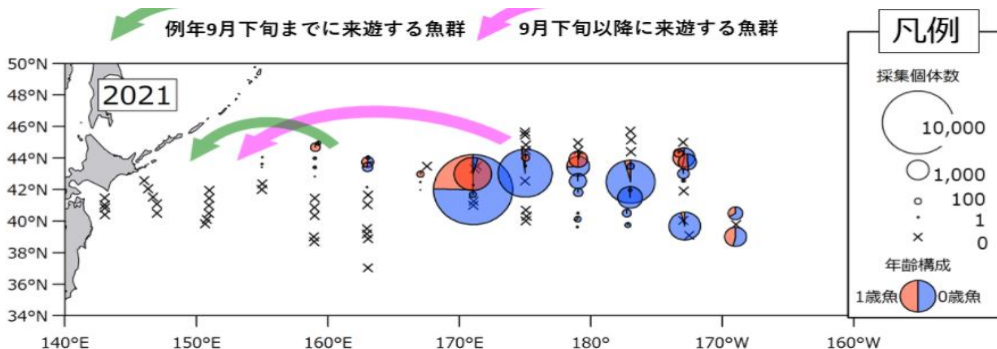
8~12월 어획물 중 1세어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세어 평균 체중은 지난해

를 상회하는 120~140g 개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계자는 『2019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 작은 개체가 많다』라며, 『기름기나 비만도가 좋지 않다. 마리당 160g 이상의 특대 사이즈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어장은 8월 하순 에토로후섬 북쪽 쿠릴 열도 근방에 최초의 어군이 도착하면서 형성되지만 어군의 밀도는 낮고, 공해가 주 어장이 되는 것은 9월 하순 이후로 전망된다. 일본 연안 남하는 수온 등 해양 환경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리쿠(三陸) 해역으로의 어군 남하 시기는 예년보다 늦고 어장 형성은 10월 하순이지만 내유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황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근해의 쿠로시오 기류의 북쪽 한계 위치는 매우 북편으로 추이
  - 오야시오 제1분기의 계시(흐름)는 다소 북쪽 ~ 상당히 북쪽으로 추이
  - 네무로 반도 남동근해의 난수괴는 소멸
  - 산리쿠 해역에 새로운 난수괴 발생
- \* 자료 출처: 일본수산청(2021.7.30)





## EU,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자국 유류보조금 허용 입장

### 지속가능어업에 대한 유류 보조금 유지 주장

현재 중단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9월초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각국은 협상 의장이 제시한 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EU 대변인에 따르면 EU는 유류보조금 허용, 개발도상국에 대한 면제 제한 입장이다.

EU 대변인은 『EU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파트너십 협정(양자 협정)하에 이뤄지는 어업과 같이 지속가능한 어업은 보호되어야 하며 유류 보조금 금지의 초점은 유류 가격을 시장 수준 이하로 낮추는 보조금에 맞춰야 함을 강조한다』며 『진정한 지속가능성이 과제』라고 말했다.

EU의 입장은 개발도상국의 주장과 상충된다. 인도가 EU 입장에 반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7월 15일 장관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어업 능력을 영구적으로 불리한 합의에 가두지 않고 미래를 위해 성장을 위한 영역에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입장이 영국과 인도의 극단적 입장 사이 중간 지점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8월 2일자

## 중국의 새로운 수산업 발전 정책

### 수산업 현대화·규모화와 동시에 구조조정 추진

최근 중국 재정부와 농업농촌부가 ‘중국 수산업 발전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한 수산업의 양질 발전 추구에 관한 통지(关于实施渔业发展支持政策推动渔业高质量发展的通知)’를 발표하여 14.5계획 기간(2020~2025년) 동안의 수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지속적 이행 : 국가급 바다목장 사업, 수산물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수산업 인프라 건설, 지속가능한 발

- 전, 수산자원 조사 및 국제 규정 준수 추진
- 2. 미래 수산업 발전 방향 명시 : 수산업의 규모화, 기술 현대화 및 첨단화
- 3. 수산업 구조조정 : 어민을 위한 직접적인 수산업 보조금을 취소하면서 자원 회복 유도, 어민의 전업 추진을 위해 양식업 및 가공업 발전 추진 등

\* 기사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1년 7월 29일자



## 소말리아 새로운 수산법 초안 마련

### 허가 시스템 통합 목적

소말리아 수산해양자원부는 새로운 수산법 초안을 마련했다. 수산해양자원부는 이 법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 및 주정부 기관들을 참여시켜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어업 분야의 무질서한 규제를 통합하려 한다.

수산해양자원부 Mohamud Sheikh Abdullahi 수산 국장은 일부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보다 강력했던 초기 연방 구조가 약탈자들에게 소말리아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소말리아는 시아드 바레 정권이 몰락한 이후 국가 기관이 붕괴된 가운데 자국 어장을 지키기 위해 고군

분투해 왔다. 연방정부가 등장하면서 연방정부가 불법어업과 관계된 선박인지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진 회원국이 어선에 대한 허가를 하기 시작했다.

소말리아는 2018년부터 선박 등록 시스템을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척수는 2018년 30척 이하에서 2021년 55척으로 증가했다.

통합법은 아마 7~10월 사이에 실시될 선거 이후에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회원국 간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기사 출처: The East African, 2021년 7월 19일자

## 뉴질랜드 심해 어업자, 해저산 트롤 금지요구에 반발

### NGO, 뉴질랜드 의회에 요구

뉴질랜드 심해 어업자들이 환경 NGO의 해저산(海山) 트롤어업 금지 청원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의회 환경선정위원회는 최근 화산활동으로 해저에 형성된 해저산에서의 트롤어업 금지를 요구하는 NGO의 청원서를 받았다. 해저산이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이유 때문이다.

뉴질랜드 심해어업단체 DeepWater Group CEO George Clement는 이 청원이 『저인망 트롤어업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고 현실을 왜곡한다』라고 주장했다.

Clement에 따르면 저인망 트롤어업과 겹치는

지역은 뉴질랜드 EEZ의 1.1%에 불과하며, 지난 수십 년 간 변동이 거의 없었다. Clement는 또한 저인망 방식의 트롤 조업 금지 구역(120만km<sup>2</sup>) 설정으로 뉴질랜드 EEZ 내의 해저산 142곳 중 89%에 해당하는 127곳에서 한 번도 트롤어업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lement는 저인망 트롤 어업의 거의 대부분은 입증된 어장에서 이루어지며 트롤 그물은 모래와 펄에만 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뉴질랜드 정부에 어업이 이뤄지지 않은 EEZ 92%에 대한 생물 다양성 조사를 촉구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6일자



## 세계 수산물 시장, 2030년 2억 톤 성장 전망

### FAO-OECD 농업 전망 보고서 발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OECD가 2021~2030년간의 10년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농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시점의 생산량은 2018~2020년의 3년 평균(1억 7,800만 톤)보다 12.8% (2,300만 톤) 성장한 2억 1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 중 자연산은 9,700만 톤으로, 2018~2020년 평균 대비 3.6%(300만 톤), 연 0.4%포인트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양식 생산량은 2027년 자연산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양식 생산량은 2018~2020 평균 대비 23%(1,900만 톤) 증가한 1억 300만 톤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수산물 생산 증가량은 지난 10년간 3,300만 톤으로, 연간 2.1% 수준이다. 향후 10년간의 성장 추세는 지난 10년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업은 성장 일로를 걷고 있으나, 향후 다소 침체될 전망이다. 양식업 연간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4%였으나 향후 10년간 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1인당 예상 수산물 소비량은 21.2kg으로, 2018~2020년 연평균 소비량에 비해 0.7킬로 증가하지만, 연간 성장률은 0.4%로 지난 10년 평균 성장률인 1.1%에 비해 하락할 전망이다.

수산물 명목 가격은 2030년까지 10년간 연 0.8~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는 22년에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실질가격은 중국의 정책 변경, 돼지고기 등 수산 이외의 단백질과의 경쟁 격화 등을 이유로 양식 연평균 0.3%, 자연산 1.1%, 어분 0.6%, 어유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7월 19일자

## EU-모리타니, 새로운 수산업 협정 타결

### EU, 모리타니 수역에서 연간 29만톤 조업 가능

EU와 모리타니는 지난 7월 28일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관한 양자 협정 갱신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새로운 협정에 수반되는 이행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기간은 5년이다.

새로운 의정서에는 시행 3년차 이전에 조건을 재검토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EU 어업 실적을 고려하여 어업 기회와 재정적 기여를 조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EU는 모리타니 수역에서 연간 29만톤의 참치, 갑각류, 저서어류, 소형 원양어류를 어획할 수 있다.

EU는 어업인들이 지불하는 입어료 외에 연간 5,750만 유로를 모리타니에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EU는 의정서 이행 기간 동안 모리타니 수산업 분야에 추가적으로 1,650만 유로를 지원한다.

\* 기사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년 7월 29일



## 타이 유니온, 호주 오메가-3 회사 지분 인수

### 참치 오일 캡슐 제조 회사와 전략적 협력 추진

타이 유니온 그룹이 호주의 클로버사 지분 10%를 인수했다. 투자 규모는 2,090만 달러이다.

타이 유니온은 급성장하는 식품 원료 사업이 이러한 전략적 소수 지분 투자의 핵심 동인이라고 밝혔다. 타이 유니온은 클로버사가 세계 최고의 참치 오일 캡슐 회사이며 타이 유니온이 생산하는 참치 오일의 장기 전략적 고객이라고 덧붙였다.

타이 유니온은 『우리는 DHA가 풍부한 제품에 대한 호주, 아시아, 유럽에서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클로버사의 Nu-Mega 브랜드 제품들은 2001년부터 출시되었다. 클로버사는 참치 등 어류, 조류 등의 오일을 ‘마이크로캡슐화 기술’로 유아용 유동식, 식품, 음료에 첨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 타이 유니온의 2분기 순이익은 23억 4,000

만 바트(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좋았으며 미국 레스토랑 체인 Red Lobster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었다.

타이 유니온은 참치 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Healthy Living’ 제품군을 확장해 올해 2월 Simplot Australia사의 John West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했으며 7월 더 많은 소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타이 유니온의 대체 단백질 사업부는 태국에서 대체 단백질 부문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최근 태국에서 대체 단백질 제품을 공동 제조하기 위해 V-Foods사, More Meat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10일자

## 프린스 그룹, 2030년까지 탄소중립 약속

### 지난 7년 동안 탄소 배출량 23% 감축

영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 통조림 공급업체 중 하나인 프린스(Princes) 그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프린스 그룹은 미쓰비시가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그룹의 수산물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현재 CO2 2만 7,500톤 정도로 추정된다.

프린스 그룹은 LED로 조명 교체, 열병합발전소 건설, 태양광 PV 패널 설치 등의 노력으로 2014년 이후 탄소 배출량을 23%(3만 4,000톤 이상) 감소시켰다.

이 그룹은 앞으로 제조 현장의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체 에너지 발전 비율을 5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폐수 25%, 일반 쓰레기 30%,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을 희망한다.

프린스는 모든 브랜드의 참치 멀티팩(여러개들이)에 사용되었던 플라스틱 포장을 모두 판지로 교체해 매년 96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8월 10일자



## 미·중·러 등 10개국, 어업 규제 위해 북극 연구 추진 이르면 2022년부터 어업 쿼터 발효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의 국가가 국제 규정 확립을 위한 조치로 북극해 어업 공동연구를 계획 중이다.

9개국 대표와 EU 대표단이 2022년 초 한국에서 만나 타 지역의 유사한 조약을 근거로 하는 어업 쿼터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쿼터는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국가들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시행 지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의 노력은 지난 6월 발효된 북극 비규제 어업을 금지하기로 한 국제 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중국·러시아 3개국이 모두 해당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북극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고취시켰다. 지구 온난화는 20세기 이후 북극의 얼음을 40% 가까이 감소

시켰다. 잠재적 어장이 확대되면서,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동 연구는 북극 어류의 종류와 이들의 현 어획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수산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설정한 쿼터 내에서 상업적 어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규정이 공포될 예정이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외에 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한국도 비규제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어업분쟁 해결을 위해 자원관리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의 목표는 2023~2024년까지 국제 규정을 설립하는 것이다.

북극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과 같은 국제 규정이 없다. 각국은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 기사 출처: 닷케이 아시아, 2021년 8월 1일자

## 유럽·중국 홍수로 해운 운임 인상 불가피 전망 만다린시핑 대표 언급

유럽과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 해운투자기업 만다린시핑의 팀 혁슬리 대표는 유럽과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가 전 세계 공급망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우와 홍수는 많은 서유럽 국가, 특히 독일과 벨기에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혁슬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네덜란드 로

테르담과 독일 함부르크로 연결되는 철도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며 『화물 운송이 지연되는 등 운송 업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 허난성에서도 홍수가 발생으로 인해 철도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혁슬리는 이러한 철도 붕괴로 인해 해운 운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7월 28일자



## 미국 해산물 체인, 식물 기반 수산물 메뉴 출시

### Long John Silver's 레스토랑 5곳에서 시험 예정

미국 전역에 7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Long John Silver's사가 미국 주요 수산물 체인 중 처음으로 식물 기반 수산물 메뉴를 출시했다.

Long John Silver's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식물 기반 유사 수산물 제품을 생산하는 Good Catch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Good Catch사의 '식물 기반 생선 없는 생선까스'와 '식물 기반 튀김 옷 입힌 크랩 케이크' 제품을 미국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주에 있는 레스토랑 5곳에서 시험해볼 예정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8월 3일자



## 기후 변화, 크릴새우 번식에 영향 미친다.

### 수온 상승, 번식 성공에 영향 미쳐

최근 해양생물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에 발표된 오리건 주립 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조건이 남극 크릴새우 번식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수온 상승은 생식가능연령 암컷

크릴새우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수온 상승이 발생한 계절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8월 9일자



# 바다1

정지용

오·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가니,  
오·오·오·오·오· 연달아서 몰아 온다.

간밤에 잠 살포시  
머언 뇌성이 울더니,

오늘 아침 바다는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철썩, 처얼썩, 철썩, 처얼썩, 철썩  
제비 날아들 듯 물결 사이사이로 춤을 추어.





#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 다 잡겠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200억 원), 정부 비축사업(+300억 원) 확대 등 수급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수요 창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비축 방출 등 수산물 가격 안정 전략을 제시하였다.

### 1. 가격할인 지원

먼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규모를 390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확대하여 하반기에 6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 여름특별전(7.19~8.18, 개최 중) → 풍어기원특별전(8.23~29) → 추석특별전(9.1~22) → 가을특별전(10.4~24) → 코리아수산페스타(11.1~15) → 연말이벤트전(11.15~12.8)

행사는 31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할인품목은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하여 품목선정위원회에서 행사별로 선정하되, 대중성어종 6종\*을 포함하여 행사별로 평균 1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특별전(9. 1.~22.)'의 경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할인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한다.

-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행사 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 행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부스 행사는 전국 25개 전통시장을 별도 지정하여 추석 기간(9. 1.~22.) 동안 시장별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방문 고객은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5천 원권, 1만 원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2. 정부 비축 사업

시장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비축 사업 규모

를 705억 원에서 1,005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추석 전(8. 30.~9. 18.) 대중성어종 6종을 시중 가격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9,200톤 집중 방출하여, 평시 대비 시중 공급물량을 1.17배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최대 1.8만 톤을 수매할 예정인데, 추석 물가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정부 수매는 최대한 추석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 3. 민간 수매 용자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산물 유통·보관·가공업계 등을 지원하고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수매 용자금 규모를 509억 원에서 719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이용하는 업체는 수매 물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 방출명령에 적극 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 사업자 공모 시에는 고수온, 태풍 등으로 긴급 수매가 필요한 품목을 우선 수매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은 수입산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 4. 대중성어종 물가관리 시스템 강화

추석을 앞두고 대중성어종(6종)을 성수품으로 선정하여 수급 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와 협업하여 물가 동향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가격 안정대 여부를 판단하여 '물가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한, 수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수시로 운영하며, '수산물 수급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물가 상승 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기관별 조치 사항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1일까지 관할 사·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1일(수)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명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 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수익액 및 어선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 수산식품 수출기업, 365일 24시간 지원 받는다

### 수출애로 신속 해소를 위해 해외 무역지원센터의 비대면 지원 기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외 수산 무역지원센터(이하 '해외 센터')에 온라인 '365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8월 9일(월)부터 운영한다.

해외 센터는 현재 7개 국가에 10개소\*가 있는데, 이들은 해외 지사 등 현지 인프라가 없는 수출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처를 알선하며, 통관 거부 등 무역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일본(도쿄), 중국(상해, 청도, 홍콩), 대만(타이베이), 미국(LA, 뉴저지), 태국(방콕), 베트남

(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온라인 365 상담 창구에서는 상담 신청 접수와 처리 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 센터를 통한 통역과 1:1 화상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씨푸드 수출 지원 플랫폼'에 수출업체가 직접 자사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 등록·관리 기능이 신설되었고, 해외 바이어가 '수출상품 전시관'을 통해 관심상품 견적 문의와 샘플 배송 요청은 물론, 수출업체와의 1:1 화상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었다.



##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 해제됐다 2021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의회 보고서를 통해 공식 해제

해양수산부는 8월 1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 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후 2020년 1월에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했다.

이후,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EU, 일본, 우리나라

라 등이 가입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 지정 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포유류 등 혼획금지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금년 10월경에 개정하여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가입국이 공통 적용받을 수 있는 혼획금지 규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EU, 일본 등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맞게 개선하였다.

### 원양어선 전자 보고 근거 명확히 한다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8. 18.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 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8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

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휴대용PC로도 조업활동(어획, 전재, 양륙 등)사항을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원양어업 종사자의 전 재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각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하였다.



##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 해수부,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8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어선 정보의 등록·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장치의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과 고장 시 조치방법 등 장치의 운영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성능 및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방법을 명시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선위치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어선의 폐선,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위치정보 연계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시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 선원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깁니다

### 선상 생활용 마음건강 관리 책자 발간배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6일(금) '선원 마음건강 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선원단체, 해기교육기관, 선박회사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선원 마음건강 책자는 선원 자가 관리용 책자 2권과 선사 담당자용 2권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타인 지지하기, 긍정적 마음 건강 증진 및 편견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권은 선원 정신건강 회복하기, 자기 돌봄, 위기에 대처하기, 동료와의 연결고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는 인쇄본 형태로 선원단체, 해기교육기관, 선박회사 등에 배포되며, 책자 PDF 파일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선원 네트워크(APEC SEN) 누리집(sen.apec.org/publications/reports.php)

에도 게시하여 선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선원 마음건강 책자가 지난해 5월부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선원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과 더불어 선원의 고립감 및 우울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원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220건의 대면 상담과 238건의 비대면(유선, 카카오톡 등) 상담이 이뤄진 바 있다.

선원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로 전화 문의(051-996-3645, 3649)도 가능하다.



#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 8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백신 우선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서,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원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올해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중이다.

\* 「국적선원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 국적 외항선 내국인선원 → 국적 외항선, 국적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내국인선원

그러나,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한 백신 접종이 곤란함에 따라 국내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우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8월 23일(월)부터 별도의 전화예약(8월 23일부터 예약 가능)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우선,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

(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한다. 이후, 1339콜센터(전국)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통해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 가능. 다만, 국내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일/한-중항로 여객 및 화물선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 가능

\*\* 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해당 선원이 선사, 소속된 협회·단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음

\*\*\*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5곳 및 예방접종센터 10곳

맞춤형 접종 대상 선원은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선원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1·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 후 3일, 7일, 14일 이상반응 대처방법 안내 문자 발송



##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8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 게도 적용\*\*된다.

\*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

\*\*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선원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 원양어선원가족 위한 ‘국민관광상품권’ 배부한다

### 해외조업현장 방문사업을 관광상품권으로 전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복지센터)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원들의 국내여행 지원을 통한 가족 간 화합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관광상품권’ 배부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센터는 매년 원양어선원 및 가족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양어선원가족 해외조업 현장 방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동 사업 신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복지센터는 지난해에도 방문사업을 대체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신청 기준일로 승선 중 또는 하선일로 6개월 이내인 원양어선원 및 해외취업어선원이며 선착순 870명에게 10만원권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신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Tel. 051-996-3649)에 문의하면 된다.

#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b>회장</b>	<b>윤명길</b>	<b>589-1600</b>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박설진 차장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20	기획홍보지원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해외협력 2부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품치
부산지부	-	(051)	총괄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김수민 전문관 044-868-7832	일반/지역수산기구
		이원영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투자, 행정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결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6호**

발행 : 2021년 8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망)」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농림축산검역본부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b>참 치 회</b>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b>참치통조림</b>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b>오징어</b>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b>명 태</b>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b>조기류(민어과)</b>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	--------------------------------

	<b>공 치</b>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나다.
-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나다.